

2024년 겨울호 vol.177

이화 동창

2024 이화인의 밤 / '이화 역사바로 알기'에 동참한 모교 응원 잔치
제1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 도운 성선경 동창
2024 이화 가족 성탄예배 / 제10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원-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7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원-2025년 기준 만 60세 미만(1988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본관 앞뜰 소나무 설경(2024)

편집위원

-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 곽은이(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 김경명(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 최지영(사화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이영희(사화 88, 편집위원)
-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5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2024 이화 성탄 기도

03 2024 이화인의밤
'이화 역사 바로 알기'에 동참하며
모교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다

08 2024 이화 가족 성탄예배
"이번엔 우리 차례,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

10 제10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를 이어 전하는 이화 가족 사랑,
뜻깊은 추억을 쌓는 소중한 기회

14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이화의 진선미 정신 빛나게 계승하고
새로운 영광과 연대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18 2024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프회
'이화'와 '이화 동창'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존재

20 '이울 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 행사
포용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이울 공동체

22 제1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동천학원 이사장 성선경 동창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 기다림의 교육

26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한국의 파브르'라 불리는 곤충학자 정부희 동창
꽃과 자연이 운명처럼 삶에 들어오다

30 총동창회 소식
모교 총장 후보 추천 선거 논의 의

32 선교부 소식
스크랜튼상 수상 소감

43 모교 소식
모교 연구자 39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의

37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의

41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의

50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의

59 동창 근황 김영자 동창 의

68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68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71 연회비 납부자 명단



03



08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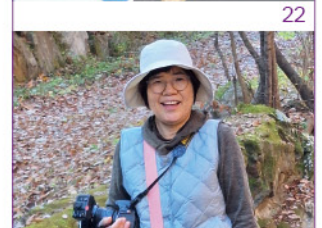
18



22



26



26



2024 이화 성탄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룩한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화의 동창,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 가족 모두에게 은총 내려주소서.

138년 이화동산에 동행해주신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이화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소유와功名심, 사심과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지 않는 빈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화동산에서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일상 가운데
 지혜의 등불로, 평안의 숨결로, 화목의 화신으로 와주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동산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화인의 빈 마음이
 절망과 고통 많은 세상에 오시는 희망동이 아기 예수님을 낳 수 있는 구유 되게 해주십시오.
 높고 화려한 곳, 강하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한 곳에 스스로를 낮추어 오시는 주님,
 저희로 그 거룩한 탄생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 알게 해주십시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이화 학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희망의 빛으로 와주소서.
 높은 천장과 막힌 담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화 젊은이들의 고단한 마음에
 위로의 생기로 와주소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26만 동창들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로 와주소서.
 폭력과 억압, 차별 아래 울부짖는 세상 모든 여성과 기도로써
 연대하게 해주십시오.
 동창들의 손과 발에 사랑의 불씨로 와주소서, 이화 동창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의 돕는 손길과 발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낮은 곳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화인은
 그 사랑의 사건 모방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이화동산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온 누리에 관용과 평화 넘치기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안선희(기독 88,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이화 역사 바로 알기’에 동참하며 모교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24 이화인의 밤’이 2024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동창과 모교 직원 및 교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동창들은 총동창회가 개최하는 ‘이화인의 밤’ 행사를 통해 친밀한 우애를 다지고 정성껏 마련한 기금으로 모교를 응원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1부는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1부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통해 “이화가 복을 나누는 생명의 빛 된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니 300여 일이 마치 3,000여 일을 지내온 듯하다”고 소

회를 밝히며 “총동창회 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가며 갈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신 여러 동창 선후배님들 덕분에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구약성서 <잠언>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27장 17절)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이화SORT’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 ‘이화의 역사’가 다시금 조명될 때, 동창 선후배님들 삶의 모습이 서로를 통해 환히 비춰지고 나아가 ‘이화의 이화됨’이 온 나라와 세계 속에 환히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과 김은미 총장의 마지막 모교 소식

곧이어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한 이명경 총동창회장 (왼쪽)과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성선경 동창(오른쪽)

꽃다발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은 모교발전기금 전달식 순서를 가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의 정성 어린 동참과 성원으로 마련한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1억 5,000만 원과 재학생 장학금 5,000만 원,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이화 동창을 찾아 격려하는 제1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삶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한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대표이사 성선경(국문 62) 동창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버려진 영아들의 어머니이자 중증장애 아동의 대모로서 오랫동안 일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정립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올해의 수상자 성동창의 활동 영상이 상영된 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성선경 동창에게 상패와 부상(상금 1,000만 원)을 전달하자, 객석에서는 축하와 존경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1974년 충현영아원(현 동천의 집) 부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나운서이자 기자로 활약한 성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이계진 전 아나운서를 비롯해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몇몇이 단상에 올라 축하의

총 2억 원의 총동창회 모교발전기금을 김은미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은미 총장은 기금 전달에 감사로 화답하며 동창들이 궁금해하는 모교 소식을 전했다.

제18대 총장으로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마지막으로 모교 소식을 전하게 된 김은미 총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화 프런티어 사업,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특성화 사업, 4차산업혁명 시대 첨단 학문 분야 도입,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방법 개발, 이화 150주년 기념사업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설과 헬렌관 첨단도서관 재건축 사업, 그리고 역사편찬사업 등을 소개했다. 모교 홍보영상에서 모교 최초의 도서관이었던 헬렌관이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도서관으로 변신한 조감도가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과 이화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동창 여러분 덕분

'이화 역사 스토리 퀴즈'의 정답을 맞히고 기뻐하는 동창

건배 제의를 하는 장상 전 총장

행운순물을 뽑는 장명수 이사장





모교 한국음악과의 '이화SORI' 단원들이 펼친 소리극 <이화 역사를 비추다> 공연 장면. 오른쪽 아래는 '이화SORI' 민요 메들리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즐겁게 어깨춤을 추는 동창들의 모습

에 이화는 창립 150주년과 그 너머를 향해 오늘도 큰 꿈을 꾸며 더 높이 더 멀리 날 것"이라며 "그동안 넘치게 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로 모교 소식을 끝맺었다.

추억을 나누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성한 만찬

이어진 2부는 장상 전 총장의 건배 제의로 문을 열었다. 장상 전 총장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한번의 건배사로는 아쉽다"며 "이화의 세 가지 역사적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 번의 건배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첫째, 1886년 이화 창립, 둘째, 1946년 제1호(한국 최초) 종합대학 인가, 셋째, 이화의 창조적 미래를 위해"라는 장상 전 총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한 동창들도 모두 큰 소리로 세 번의 "건배!"를 외치며 이화를 축복했다.

2부 진행을 맡은 강승애(체육 95) 총동창회 회우 부장은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양쪽의 스크란을 통해 행운선물 당첨자의 티켓 번호가 송출됨을 안내했고, 동창들은 오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서로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정겨운 만찬을 즐겼다.

그중에서도 모녀가 나란히 앉아 만찬을 즐기는 정겨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광연희(관현 89) 동창은 어머니 이열자(교육 60) 동창을 모시고 참석했다. 광동창은 "연말이기도 하고 대선배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딸로서 감회가 남다르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머니 이 동창 역시 "이 나이에 모교 행사에 참석한 것만 해도 흐뭇하고 영광스럽고, 모교 행사에 와보니 학창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2024년 영원한 이화인 테이블에서는 12년 위의 선배를 모시고 참석해 함께 만찬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화가이자 (사)녹미미술문화협회 상임이사인 김귀주(동양 74, 전 동양화와 동창회장) 동창은 현재 한국 여류화가협회와 녹미미술문화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천연순(서양 62) 동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보면서 '이화인'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반갑고 정겨운 만남의 자리. 크리스마스 소품과 액세서리로 한껏 분위기를 낸 동창들이 행사 테이블과 포토존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말했다.

영문과 동창 테이블에서는 영학회 회장 정경숙(영문 79) 동창을 만나 2025년 영문과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성 교육의 역사는 바로 1925년 모교 영문과의 문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정 동창은 “영문과 동창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제대로 된 여성 교육을 받은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 소중한 결과로 얻어진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3부 아름다운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강승애 회우부장의 사회로 행운선물에 당첨되지 못한 동창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깜짝 현장 행운선물 추첨이 진행됐다. 자신의 티켓 번호가 호명된 동창들은 저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달려나

와 푸짐한 선물을 한아름 안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뜻깊은 소리극 공연, <이화 역사를 비추다>

3부는 모교 한국음악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이화SORI'(연주팀 7명, 소리팀 6명 총 13명)의 <이화 역사를 비추다>라는 뜻깊은 소리극 공연으로 꾸며졌다.

이번 소리극은 지난 2016년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에서 국악 관현악과 함께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공연으로, 이후 교목실의 요청으로 2023년 5월 모교 창립주간 채플과 2024년 1월 모교 신년음악회에서도 무대에 올렸던 경력을 자랑한다. 이화학당을 창립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헌신과 공적, 이로부터 시작된 여성교육의 선도적 여정과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희망찬 이야기로, 모교의

설립 정신과 역사를 담아낸 감동적인 소리극이다. 공연의 총지휘를 맡은 강효주(한음 01, 한국음악과 교수) 동창은 “스크린트 선교사의 이야기는 모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며 “오늘 공연에는 영상디자인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스크린으로 송출되는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압축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의 선후배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공연을 통해 ‘이화 역사 바로 알기’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공연이 끝난 후 ‘이화 SORI’ 단원 중 신한별(한음 23) 동창과 김주연(한음 23) 동창의 깜찍하고 발랄한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이화 역사 스토리 퀴즈’ 맞히기 순서가 이어졌다. “이화의 교목은?” “대강당 앞 계단의 개수는?” “ECC 건축가의 출신국은?” 같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각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으며 모교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화SORI’의 선창에 따라 한 목소리로 민요와 캐럴 메들리를 부르며 신나고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

단 세 번의 행운권 추첨을 남겨둔 채 모두가 기다리던 4부 순서가 이어졌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각각 행운권을 뽑아 티켓 번호를 부르자, 당첨된 동창들은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가득 담고 달려와 선물을 수령했다. 이어 모

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화SORI’의 선창에 맞춰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염원하며 교가를 제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장 상·이배용·김선옥·김혜숙 전 총장과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김순영·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및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며 이화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만남, 여기서 얻은 감동과 에너지가 내일을 살아갈 도전과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창들은 소중한 만남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을 기약하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를 위해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윤순희·김순영 전 총동창회장, 이경숙·김영주·남상택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곽은아 부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이정화·정은실 감사, 김경령 총무, 이경희·이수은·김구슬·조선영·최지영·강승애 부장, 임복희·정소희·허현미·윤금진·안경희·임선영·황미경·우미형·양수화·김곡미 대학(원) 동창회장), 이화동창(이진민, 김미령, 김희란, 김희정, 배경화, 신난식, 최은희, 박신정, 이난옥, 육명희, 박혜성, 서희경), 기타(동화약품, 서울식품공업(주), 샘표식품, SOON 문화원, 인터컨티넨탈 호텔, 모교 대외협력처, 모교 의료원, 총동창회) 등이 푸짐한 행운선물을 기증했으며, 당첨된 동창들은 기쁜 마음으로 깜짝 행운을 즐겼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는 총동창회 수첩과 달력, 토굴고추장(주)샘표식품 협찬, 에너지이징 크림과 티피런스 퍼플티(아이소이 협찬), 씨일러 베이커리 빵과 커피 교환 쿠폰(서울식품공업(주)), 바이오 유스 크림(동화약품 협찬), 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가 담긴 알찬 선물 꾸러미가 제공됐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가 준비한 기념선물

“이번엔 우리 차례,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안선희 교목실장(위부터)

매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성탄예배가 있다. 2024년 12월 5일(목) 오후 3시, '이대에 오르기'는 오늘도 바빴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받아 주기 위해 대강당 정문은 3시 10분이 넘어 서야 닫혔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인가 보다.

이화 동창 선교부와 2024년 마지막 채플이기도 했던 시간. 무용과 발레전공 학생들은 초록색 발레복을 입고 환상적인 무용을 보여 주었다. 김혜령(기독 99) 교목실·호크마교양대학 교수, 안등용 노조위원장, 사라 술탄 국제학부 학생, 오주영(화학 94) 동창 선교사가 대표로 이화 성탄 기도를 올렸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이라는 추임새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도였다. 누가복음 2:1-7, 요한복음 1:14-16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낭독하고, 음대 합창단이 신지화

(성악 84) 교수의 청명한 독창과 함께 <오 거룩한 밤>을 찬양하였다.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이 '이번엔 우리 차례'라는 말씀을 통해, 한없이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하강의 기회와 시간이 우리의 차례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음대 합창단과 타악기 앙상블의 <베텔레헤무(Betelehemu, 나이지리아 민요)>는 아프리카 전통 성탄 찬양이었는데, 낯설긴 했지만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나라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준비한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 영상을 통해 선교의 열정으로 세워진 이화여대의 시작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50여 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있는 140여 명의 동창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성탄예배 헌금은 모든 이화 동창 선교사들에게 헌금으로 보낸다.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목상하며 기도드리는 감동을 주었고, 총장으로서는 올해가 마지막 참여라고 한 김은미 총장의 성탄 인사 또한 몽클했다. 하나님을 담대히 높여드린 4년간의 김 총장의 임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MZ 세대인 현대무용전공자들의 축하무용도 매우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을 드리고 안선희 교목실장이 마지막 성탄예배 축도를 해주심으로 이화 가족 성탄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렸다.

2025년 이화 동창 선교사 기도수첩, 이대서울병원 안내 파일, 탈북민 선교를 하는 동창의 글이 실린 책자와 성탄 쿠키 등 풍성한 선물을 받고 모교 교정을 걸어 나오는 길도 행복했다. 단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내린 비는 여러 가지 슬픈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을까? 나라와 민족, 이화 채플과 2025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사인처럼 느껴진 겨울비였다.

글·안영주(유교 88)



이화에 대한 기도, 이화역사 알기와 함께 각종 공연으로 성탄을 축하했다

대를 이어 전하는 이화가족 사랑, 뜻깊은 추억을 쌓는 소중한 기회



(왼쪽) 작품을 제출하고
도시락을 받는 모습
(오른쪽) 가을 소풍을 나온 듯
중강당 앞 잔디밭에 돛자리를
펼치고 둘러앉은 이화 가족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이하 그림대회)'가 2024년 10월 5일(토), 아름다운 이화의 가을 교정에서 이화 동창과 모교 교직원의 자녀 및 가족 등 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하는 그림대회는 명실공히 총동창회의 대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화가족 사랑'이라는 모토가 이화의 모든 가족에게, 그리고 조모에서 손주까지 대를 이어 전해지며 뜻깊은 추억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동창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인자가 되고 있다.

그림대회의 인기와 관심을 증명하듯 접수는 신청 첫날인 8월 20일(화)에 선착순 마감되었다. 곳은 날씨였던 지난해와 달리, 2024년에는 유치부(4~6세) 113명, 초등부(1~3학년) 128명 총 241명의 신청자가 대부분 참가해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잔치로 치러졌다. 할머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접수대에서 도화지와 이름표를 받아 든 아이들은 울여름의 무더위를 보상받듯 선선한 바람과 은은한 햇살로 가득 채워진 이화 캠퍼스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개운한 가을날을 온몸으로 즐겼다.

한 어린이가 풍선 아트
코너에서 풍선을 받아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동창들 사이에 소문난 어린이 잔치

대강당 양쪽으로 차려진 본부석과 선물 준비 테이블에서는 일찍부터 나온 총동창회 임원진들이 비쁜 손놀림으로 참가자 명단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줄 기념품과 도시락을 포장했다. 본부석 옆으로는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황화방의 미니카페 코너도 마련되었다. 어린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담당자들도 일찌감치 자리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회장의 “오늘 좋은 하루, 안전한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개회선언으로 오전 10시 30분 '제10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시작되었다.

올해 그림 그리기 작품의 주제는 '지난여름'이다. 지난해의 '가을 소풍' 주제와 비슷하게 '가을 하늘'이나 '낙엽' 등으로 그림대회를 준비했다는 몇몇 어린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지난 반세기 중 가장 뜨거웠다는 지난여름, 가족과 함께 갔던 푸르른 바닷가, 온 가족이 에어컨 앞을 떠나지 못했던 재밌는 기억 등을 떠올리며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도화지를 채워갔다.

네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왈자지껄하게 접수대를 찾은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세 모녀 동창인 전길자(화학 74, 전 학생처장, 화학과 명예교수) 동창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양손에 아이들 짐을 들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마주한 전 동창은 큰딸 변지연(의학 04) 동창의 자녀 심 진(초등부)·심 현(유치부) 형제와 둘째 딸 변영리(법학 04) 동창의 자녀 김희운·김찬윤(유치부) 쌍둥이 자매들을 위해 신청 접수에서부터 당일 돌봄까지 기꺼이 감당했다. 학회 참석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큰딸을 대신해 둘째 딸과 함께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는 전 동창은 “이렇게 좋은 날에 손주들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딸 신아윤(초등부) 어린이의 손을 잡고 풍선 아트 대기줄에서 있는 신태섭 교육학과 교수(미래교육연구소장)도 눈에 들어왔다. 교수님의 근엄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열락 없는 ‘딸바보’의 면모를 보여준 신 교수는 “이화 가족으로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날씨도 좋아 아이와 함께 마음껏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림대회에 참가자들이 준비해 오는 필수 아이템도 화를 거듭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다. 돛자리는 물론이고 캠핑 트렌드를 반영하듯 모든 짐을 실을 수 있는 튼튼한 캠핑 웨건에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캠핑 의자와 폴딩 테이블, 휴대용 이젤까지.

딸을 낳아나의 이화 가족을 만들고 싶은 바람

그런가 하면 같은 과 절친 사이 동창들이 그림대회를 핑계(?)로 가족나들이 장소로 그만인 모교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대회 시작 전 일찌감치 접수를 마치고 풍선 아트 대기줄에서 있던 최석원(융합보건 12) 동창과 고현서(초등부) 어린이, 장연수(융합



'지난여름'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들





보건 11) 동창과 이준현(초등부) 어린이 가족이 그 예다. 올해 처음 참가한다는 두 동창은 “엄마가 된 후에도 비슷한 또래 자녀를 기르며 육아 친구로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행사에도 함께하게 되어 엄마들도 아이들도 모두 설렌다”고 귀땀했다.

중강당 앞 잔디밭에서는 널찍한 돗자리를 깔고 화판용 테이블까지 세팅하느라 분주한 가족들이 보였다. 최정선(사회과교육 10) 동창과 김지수(유치부) 어린이, 민지영(식영 12) 동창과 김태리(유치부) 어린이네 두 가족은 남편들과 최 동창의 둘째기 둘째 아이까지 모두 일곱 명이 총출동했다. 최 동창은 “아이들이 유치원 친구 사이라 유치원 행사나 숲 체험 등에서 가족끼리 모임을 갖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동창이더라고요”라며 웃음 지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캠퍼스가 너무 좋고, 아이랑 같이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최정선 동창의 소감에 이어 민지영 동창도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엄마네 학교 너무 예쁘다’고 말해 주니까 괜히 제가 뿌듯했어요. 즐겁게 공부하러 다녔던 옛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다.

엄마 최수희(환경 07) 동창과 할머니 우미형(의직 77,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장) 동창의 응원을 받으며 ‘지난여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러 갔던 푸른 바닷가 풍경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김주호(초등부) 어린이 가족을 만났다. 최수희 동창은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올 계기가 거의 없는데 아들한테 엄마가 다니던 학교, 가을이면 더욱 예쁘게 변신하는 이화의 교정을 보여주게 되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학생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 중에 동창이 있다는 것에 남다른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며 “저희 가족 중에는 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동창인데 저 역시 나의 이화 가족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딸을 낳아볼까 하는 아무진 꿈(?)을 가져본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상장과 상품을 받고 가장 멋진 포트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류 3시 장소 | 이화여대 교정, 대강당 후원 | (주)모나미, (주)크라운 해태제과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12시 30분 작품 제출 시간이 다가오자,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은 대강당 앞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멋진 작품을 자랑스레 펼쳐들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본부석에 작품을 제출한 뒤에는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 꾸러미를 받아들고 가족,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추억이 영그는 가을 나들이를 즐겼다. 얼굴, 손등, 팔뚝에 화려한 페이스 페인팅을 받은 어린이들은



풍선으로 만들어진 예쁜 꽃다발과 갖가지 동물 모형까지 손에 들고 활기차게 이화동산을 누볐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기는 동안 심사위원들은 울긋불긋 솜씨를 뽐내는 작품들을 심사했다. 올해는 심사위원장인 신영선(장미 88, 전 조형예대 동창회장) 동창과 강승주(조소 87, 조형예대 동창회장) 동창, 모교 신산업융합대 초빙교수 이상영(섬예 94) 동창이 심사를 맡았다.

총동창회 김경명(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오늘 아름다운 이화동산의 주인공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수상 여부에 상관 없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박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솜씨의 우열을 가린다기보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동심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림들에 점수를 주었다”는 신영선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 있었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 5개 부문별로 유치부 5명씩 2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곧바로 초등부도 각 부문별로 5명씩 25명에 대한 시상 이어졌다. 한 명씩 어린이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모두들 축하와 격려가 담긴 박수를 보였고 부모님들은 소중한 순간을 놓칠세라 핸드폰을 들고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외의 어린이들에게도 ‘행복 가득 상’이 수여되어 한 명도 빠짐없이 상장과 상품을 한아름 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포스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이화가족은 행복한 이화동산에서 가을날을 윈 없이 누리며 소중한 추억 한 조각을 가슴에 새겼다. 이번 그림대회를 위해 (주)모나미에서 크레파스와 문구 선물 세트를,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 스낵과 과자 세트를, (주)아이코닉에서 ‘꼬마버스 타요’ 저금통, 동아제약에서 박카스맛 젤리, 서울식품공업(주)에서 쿠키, 한국마즈(유)에서 이클립스 캔디를 후원 및 협찬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10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을 위해 무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준 기념품과 점심 도시락





2024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이화의 진선미 정신 빛나게 계승하고 새로운 영광과 연대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2024년 10월 24일(목)부터 10월 27일(일)까지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라는 슬로건 아래 샌프란시스코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회장 이영완(정의 81))를 비롯해 남가주(LA), 뉴욕,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애틀랜타, 워싱턴DC, 일리노이, 클리블랜드, 토론토,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하와이, 휴스턴 등에서 온 2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모교 김은미 총장과 총동창회 한은주·곽은아 부회장 및 이화국제재단 스웬슨(Marry Ann Swenson)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가 함께해 북미주 동창들과 화합을 다졌다.

지회장 간담회, 이사회, 총회 등 바쁜 일정

10월 24일(목) 오후 6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총동창회의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최지영(사학 89) 홍보 부장이 참석했고, 남가주(L.A) 조혜진(장미 89)·뉴욕 김영신(독문 88)·디트로이트 오주리(섬예 82)·

보스턴 공정원(영문 83)·북가주 이영완·세인트루이스 최혜영(생미 86)·시애틀 이재경(수교 80)·애틀랜타 차희숙(체육 77)·워싱턴DC 이지은(불문 96)·일리노이 서석영(정의 94)·토론토 조혜라(영문 96)·포틀랜드 한나리(체육 92)·필라델피아 조경숙(의학 81) 지회장과 휴스턴 김명옥(경영 75) 동창 등 17명이 함께했다. 이영완 북가주 지회장은 "새로 영입한 60여 명의 젊은 동창과 90대 동창까지 함께 어우러져 총회를 준비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고, 오주리 디트로이트 지회장은 "총회 참석이 처음인데,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이 솟아오른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은주 부회장은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지회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지난 2020년 134년 만에 디자인이 교체된 모교의 새로운 학위복 두 벌을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기증한다고 알렸고, 곽은아 부회장은 2025년 3월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모교 음대 100주년 기념 공연을 알리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오후 8시부터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고문 오혜경(영문 72)·김명옥(경영 75)·김정희(약학 79), 회장 이영완(정의 81), 부회장 이지은(불문 96)

동창)가 3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칙 개정과 제2서기 선출 및 차기 총회 개최지 등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이날 결의된 사항은 다음날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10월 25일(금) 오전 8시부터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는 5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총동창회 한은주 부회장이 모교 교정에서 펼쳐진 창립기념일 '동창의 날' 행사와 '가을 대바자회', 정미조 동창의 공연이 있었던 '이화인의 밤' 행사 등 1년 동안의 총동창회 활동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여 이화 공동체임을 느끼게 했다. 이영완 회장은 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기존 매뉴얼을 통합한 '총회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지영(교육 82) 이사장은 2023년 결산보고로 잔액 중 3만 달러를 모교 웨스트캠퍼스 건축기금으로 송금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정진(의학 72)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은 재단은 165개의 개인 설립 장학금과 30여 지회별 장학금이 있어 매년 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모교를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1,9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교에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4 회계연도에는 127만여 달러를 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모교에 지원하였음을 알렸고 북미주 지역에서의 모든 동창 행사와 모금 활동은 북미주 지회연합회와 국제재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알리며 많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토의를 거쳐 인준을 받았고, 제2서기에 선출된 토론토 지회장

조혜라 동창을 인준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DC 총회 준비위원장인 최미나(관현 90) 동창이 차기 총회 개최지 선언을 하고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이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

10월 25일(금) 오후 6시부터 열린 '총장님과 의 만남'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동창들과 한은주·곽은미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모교 김은미 총장과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유경하 이화의료 원장과 주용 이대서울병원장, 백옥경 이화역사관장 및 스웬슨 이화국제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완 회장은 "이번 총회의 슬로건 'Ewha, Shine in the Golden State'처럼 이화가 지닌 자부심과 전통이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더욱 빛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광과 연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했다. 한은주 부회장은 "모교 창립 138주년, 총동창회 창립 116주년 되는 2024년 샌프란시스코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지지하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의 만남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 치유와 회복이 되길 기대한다"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는 현재 15개의 학부 단과대학, 15개의 대학원, 2만 5,000명의 학생, 26만 명의 동창, 두 개의 대학 병원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이화를 세운 선교사와 스승의 가르침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항상 께어서 준비하고 끊임



김은미 총장, 한은주 총동창회 부회장, 이영완 회장(사진 위부터)



탤런트 쇼에 참가한 시애틀, 뉴욕,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지회 및 북미주합창단 공연 모습(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없이 혁신과 변혁을 이루어 낸 덕분”이라고 하면서, 동창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박민정 모교 대의 협력처장은 'Ewha West Campus'와 '이화첨단도서관' 건립 사업, 동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만찬에서는 이화의료원장과 이화역사관장을 초청하여 초창기의 이화 역사에 대한 사진자료와 유익한 강연으로 큰 감동을 안겼다. 유경하 모교 의 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화의료원 역사를 슬라이드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해외 동창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임을 강조하며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화역사관장 백옥경 교수는 '이화역사관'은 이화학당 최초의 한옥교사를 2006년 창립 120주년을 맞아 복원한 건물이라고 소개하며, 모교 방문 시 꼭 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종 행사와 만찬 통해 결속과 화합 다져

2부는 한나리 동창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하 연주'와 '탤런트 쇼' 및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모교에서 온 축하 연주팀인 박혜은(한음 09) 동창의 대금 연주, 박희원(한음 11) 동창의 판소리 흥보가에 동창들은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를 넣으며 잔치를 즐

겼다. 이어 배일환 교수의 첼로와 이아람(관현 94) 비올라, 박혜은 대금, 김유선(한음 03) 장구, 박희원 판소리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새타령>을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고유경(변유경, 성악 96) 동창이 <You Raise Me Up>을 열창했다. (바이올린 최규리(관현 18), 안미정(피아노 09) 반주)

탤런트 쇼의 시작은 필라델피아 지회, 강혜란(화학 72) 동창이 백색의 한복에 하얀 수건을 들고 아름다운 살풀이춤을 보여 주었다. 뉴욕 지회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 쇼를 무대 위에서 펼쳤는데, 기발한 아이디어와 몸동작으로 시종일관 폭소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수영모를 쓰고 망가지며 웃음을 준 완벽한 공연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시애틀 지회는 태평기에 맞춰 뽕과리 등 민속 악기를 두드리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고, 애틀랜타 지회의 조수현(수학 76) 동창은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을 멋지게 불러 주었다. 탤런트 쇼를 마치고, 전체 회원이 중앙으로 나와 지회별로 추억의 기차놀이 등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10월 26일(토) 오후 6시에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대만찬'은 22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식전 각테일 리셉션이 마련된 홀 앞

에서는 새로운 학위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동창들이 포토존에 줄을 이었다. 전일 지회별·단체로 모여 앉았던 것과 달리 졸업 연도 별로 50~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로 테이블을



시내투어에 나선 동창들

배치해, 동시대 학교를 다니며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던 동창들은 처음 만나는 어색함도 잠시, 금세 공감대를 찾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이화국제재단 스웬슨 이사장은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웬슨 이사장은 모교 김은미 총장에게 79만 2,0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김은미 총장은 지난 138년간 이화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발전하며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끈 세 분을 소개했다. 첫째, 대학과를 설치해 해방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한 ‘물루 프라이’ 4대 당장과 둘째, 신촌 교사 이전을 위해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김애다’ 동창, 마지막으로 ‘동창들이 이화에 주는 손길’이라고 강조하며, 동창과 이화국제재단의 기도와 힘찬 사랑을 당부했다. 이어 다음 차기 총회 개최지 선언을 하고 워싱턴DC 이지은 지회장에게 총회기가 인계되었다.

2부에서는 북미주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북미주 전역에서 30여 명의 동창이 지원해 줌(Zoom)으로 연습했는데, 김효근(모교 경영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첫사랑〉, 〈내 영혼 바람 되어〉 두 곡을 들려줬다. 이어 이원지(건반 08) 동창이 모교 동창을 생각하며 작곡한 〈우리는 흐르네〉(2024년 작) 합창곡을 직접 지휘해 선사했다.

이어 졸업 연도별로 그룹을 나눠 ‘디스코왕 선발

대회’와 ‘도전 노래방’ 등 선후배 간 양보 없는 열띤 대결을 벌인 끝에 70년대 졸업 그룹이 1등상을 획득했다. 모든 참석자가 어깨동무로 어우러지며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화다, 우리는 챔피언”을 외치

고 파이팅 넘치는 축제를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행사 기간 각종 특강 및 관광 스케줄도 알차게 준비되었다. 10월 25일(금)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과 10월 26일(토) 나파밸리 와인러리 관광에 참석한 동창들은 미국 서부의 눈부신 햇살과 풍경을 만끽했고, 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동창들은 호텔 안에서 준비된 ‘리듬체조 클래스’(박명정(섬예 80) 동창 지도), ‘와인 테이스팅 클래스’(김현정(동양 97) 동창 지도), ‘애프터눈 티파티 클래스’(정영준(특교 03) 동창 지도), ‘북아트 클래스’(하주현(영교 93)·박은영(사복 96) 동창 지도) 등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백옥경 관장의 ‘이화 역사 세미나’와 이화의료원 전해진 대외협력부장의 ‘성공적인 체중 관리’에 대한 건강 세미나는 행사 기간 내내 동창들의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 10월 27일(일) 오전 8시부터 김성숙(법학 60) 동창의 인도로 열린 주일예배에서는 김선희(기독 92) 동창이 ‘대대로 간증하는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북가주 증창단이 특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은혜롭게 들려주었다. 이어 ‘총장님과 대화’를 마지막으로 도전과 개척의 ‘이화 역사’를 되새기고 모교 사랑으로 동참하며 이화 공동체를 단단히 하는 3박 4일간의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마무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2024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와 ‘이화 동창’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존재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열린 오찬회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12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초청하는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회’가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총동창회 후원이사들을 위해 마련한 감사의 자리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김은미 총장, 김혜숙 전 총장, 이경숙·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곽은아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진,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비롯한 후원이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기도를 통해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교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고 섬기는 이화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장명수 이사장은 “이화에서 머문 기간은 4년이지만 그 기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장명수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그 기간 내 생의 구도를 정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이화는 이화동창들에게, 이화동창들은 이화에게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해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다고 알리며 어제 이대학보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학생들이 이화에 대한 헌신을 묻기에 ‘제가 이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이화에 대한 제 마지막 인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참석자들은 임기 동안 이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총장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자리를 위해 아침 일찍 직접 쿠키를 구워온 김 총장의 따스한 선물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오찬회를 마련한 장명수 이사장과 모교 관계자 및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을 비롯한 후원이사와 총동창회 임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올 한 해 쉽지가 않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으며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삶에서 덜어내고 싶지 않은 귀중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긴 뒤 초가을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행정동 앞뜰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눴다. 이날 이화학당 법인에서는 꽃카드 세트와 이화과자, 모교에서는 골프공 3구 세트, 총동창회에서는 에코백을 참석자들에게 증정하며 정을 나눴다.

글 · 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위) 참석자들은 행정동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다
(아래) 이화학당 법인과 모교,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포용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이올 공동체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6시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이올 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은미 모교 총장과 신난식(성악 73) 이올 연합회 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과 이정화(독문 74)·최경희(화학 80) 이올 연합회 부회장, 박민정 대외협력처 처장, 이올 회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올 연합회'는 1991년부터 각 과에서 졸업 3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과 2022년부터 50주년 대표로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해마다 창립 기념 모임을 통해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희(수학 94, OBS 아나운서) 동창의 사회로 시작된 1부 행사는 '올해의 이화인' 20주년 대표 박금

주(피아노 74) 동창이 성경 봉독을 한 데 이어 30주년 대표 성선경(국문 62) 동창이 기도를 통해 "모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활기차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도와달라"는 기도로 이어졌다.

신난식 이올 연합회 회장은 "창립 3주년을 맞아 회칙 개정과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서로 포용하고 협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고 인사말을 했다. 한은주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명정 총동창회장은 "창립 3주년을 축하하며 '진선미'의 이화 정신이 이올 공동체 안에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은미 총장은 "선후배가 서로 격려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축하떡 커팅식'을 갖고 테이블마다 떡을 나누며 '이올 연합회' 3주년을 기념하였다. 신난식 회장은 임원진을 호명하여 소개하고 단상에 오른 임원진들이 인사를 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각 30주년(1994), 20주년(2004), 10주년(2014)을 맞는 기 대표에게 축하금을 전달하였고, 권미경(교공 87) 회계가 회계보고를 했으며, 2024 이올 연합회 활동 보고 동영상상을 시청하며 한

김은미 총장과 신난식 회장, 한은주 부회장이 떡케이크를 자르며 이올 연합회 3주년을 축하했다





이울 회원들의 자기지랑과 축하 공연

해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지영(성악 94) 동창이 김현경(피아노 94) 동창의 반주로 <추억>(조병화 시, 김성태 작곡)과 <Il Bacio>(입맞춤, L.Arditi 작곡)를, '이화 아르모니아 합창단'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김용호 작사, 조성은 작곡)과 <Stein Song>(E.A. Fenstad 작곡, Rudy Vallee 편곡)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는 2024년 올해의 이화인 채수정(한음 94) 명창의 축하연주로 문을 열었다. 시조시인 이정자(기독 66) 동창이 자작시 '이울 창립 3주년을 맞으며'를 낭송했으며, 22년·23년·24년 '영원한 이화인'으로 이루어진 '영이 중창단'은 <나뭇잎 베>(박홍근 시, 윤용하 작곡, 이수인 편곡), <개나리고개>(한국 옛 노래, 이수인 편곡) 두 곡을 들려주었다. 이어 2017년 올해의 이화인 10여 명이 낭독극 <단테의 신곡> 지옥편 중 '지옥의 순례자'를 각색해 이색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신입 2024년 '올해의 이화인' 팀은 '다시 만난 이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보여줬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춰 웅장한 대 깃발을 흔드는 '깃발 퍼포먼스(Flag Performance)'를 펼치며 입장했으며, 소프라노 박지영 동창은 <You Raise Me Up>을, 마지막으로 10여 명이 경쾌한 복장으로 <Sunny & Dancing Queen> 음악에 맞춰 신나는 댄

스를 펼쳐 흥을 돋웠다. 지난 1년간의 활동과 결실을 돌아보고 화합을 다진 참석자들은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을 한 후, 새롭게 도약할 기대를 안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울 창립 3주년을 맞으며

이울의 동창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우던 탑 하나가 이울 연합 창립으로 높다란 금탑이 되어 함께해서 좋아요.

이화의 울타리서 더욱 귀한 이 만남을 귀하게 바라보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봉사와 베품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요.

해마다 이날이면 우리 함께 머리 맞대 더 좋은 것을 찾아 행하고 풀어가며 한마당 보람된 시간 추억으로 남겨요.

기마다 모임마다 특색을 찾아내어 이날을 사랑하고 각자 끼를 자랑하며 풍성한 기념잔치로 모두 함께 즐겨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뻗어가서 든든한 기둥 세워 연연마다 더해가니 이화의 주인으로서 길이길이 빛나리.

-이정자(기독 66, 98년 올해의 이화인, 시조시인)

제1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
동천학원 이사장 성선경 동창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 기다림의 교육



“장애아 교육은 기다림의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 몇 십 년을 기다리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여 직장도 갖고 자립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50여 년간 유기 영아와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헌신해 온 성선경(국문 62) 동창의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 소감이다. 1974년 충현 영아원 부원장 취임을 시작으로 1978년 장애인 생활시설 충현복지원(현 동천의 집), 1980년 장애아동 특수학교 충현복지학교(현 동천학교) 등을 설립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온 성 동창이다.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을 수많은 성공사례로 만들어 내면서 기능의 영역으로 이끌어 낸 성 동창. 발달장애인이 전인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혔으며, 그들의 사회복지 향상에 앞장서 온 그녀는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오롯이 실천한 아름다운 이화인이다.

“이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대로 동창 역할을 하지 못한 세계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황송하

기도 하고 겸연쩍기만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올해 여든여섯인데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을 받고 나니 새삼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만 가득하네요.”

문학소녀가 장애인 특수학교 이사장이 되기까지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일이 좋았던 성 동창은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성 동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일기를 썼다.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중 KBS 아나운서 공채 정보를 만났다. 열심히 준비했다. 마땅한 옷이 없어 친구 옷까지 빌려 입고 면접장에 갔는데 천운처럼 합격의 소식을 접했다. 외향적인 기질에다 친화력이 좋은 성 동창에게 아나운서 생활은 최적화된 일처럼 느껴졌다.

TV 방송시장이 열리고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던 성 동창 진로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같은 아나운서였던 남편(고 이병렬, 동천학원 2대 이사장)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 일이 재미있었기에 그만두고 싶

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아나운서실에서 부부가 일하는 것은 편치만은 않았을 터. 성 동창은 동아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왕성하게 활동을 펼쳤지만 임신과 출산은 아나운서로서의 진로 단절을 촉발했다.

“시어머님께서 충현영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죠. 한국전쟁 고아들을 보호하면서 시작하셨던 일이었어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그 일이 제 몫이 되더라고요. 영아원 부원장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유아교육,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지식이 없으니 힘이 들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갈등을 경계하던 성 동창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순명했다. 1977년 시어머님께서 작고하면서 영아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좋은 가정을 찾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입양을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다. 발달장애아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차마 내치지 못했다.

“그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을 인가 받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죠. 일반 학교를 보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이 아이들만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했어요. 충현복지학교를 설립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 학교의 규모도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지요.”

학교 설립을 통해 성 동창은 본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의 아이들을 포함해 일반 가정의 발달장애 아동들까지 품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다. 어느덧 초등학교 졸업을 맞이하고, 상급학

교 진학이 필요했다. 중등부를 개설했다. 그사이사이 성 동창은 특수교육을 전공해 학업을 지속하고 공부에 열중했다. 여러 기관을 시찰하기도 했다. 외국의 문헌을 찾고 탐방하고 실무현장에 적용하면서 내린 결론은 자립 준비였다.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시켰다.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참 성실해요. 한 가지 알려주면 원칙을 지키면서 집중력 있게 그 일을 해내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재봉이 아이들에게 적합했어요. 기계가 잘 나오는 편이라 비교적 위험하지도 않아요. 기본 재봉 교육을 6개월 정도만 해도 바로 현장실무 투입이 가능해요. 처음엔 쿠션 만드는 일로 시작했죠.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으니 한계가 있더군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주거 자립까지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찮게 모자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결정했다. 모자 제작은 손이 많이 가는 공정으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해서 적합하다고 여겼다. 조금 느릴 순 있지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니 품질만큼은 월등했다. 그렇게 시작한

‘동천모자’ 작업장을 찾아





네 살 때부터 인연을 맺은 이대길(왼쪽) 씨는 동천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립하여 올해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사회적 기업인 동천모자가 벌써 20여 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처음에는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최저 시급을 겨우 받는 수준이었다. 2002년 1억 6,000만 원의 어음이 부도나면서 위기를 맞았던 순간도 있었다. 이제는 백화점에 고가 브랜드로 납품을 하면서 완전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28억 원의 매출을 올려 흑자를 기록한 '동천모자'. 직원 66%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의 꼼꼼하고 섬세한 직무능력과 꾸준함, 바른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되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장애인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부터 직업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킬 때에는 이렇게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장애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취업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카까지 연결하니 아이들이 아주 잘했어요.”

성 동창은 모자 사업 이외에도 카트리지 사업을 병행하여 그 사업 역시 안정화를 이루었다. 또 다른 활로 개척을 위해 동천재활체육센터를 비롯해 스페셜 올림픽 분야에도 진로 개척을 시도했다.

“국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스케이트 선수가 한 명도 없었을 때였죠. 안타깝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국제 규격 스케이트장을 짓게 되었죠.

정부 지원 없이 법인 돈으로만 지으니 빚도 지게 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어놓고 나니 참 뿌듯해요. 이제는 발달장애인 스케이트 대회도 개최해요. 선수들도 꽤 육성했지요. 김연아 선수가 와서 6개월 정도 연습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 적도 있었어요.”

벌써 20년도 지난 일이었다.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성 동창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다. 발달장애 체육인의 행복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국제스페셜올림픽(격년 개최)에 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천학교 졸업생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에 늘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에 솔깃한 제안이었다. 체육인을 양성한다는 것,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유심히 살펴보고 동천에 적합한 종목을 탐색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스케이트장 신축에 들어갔다. 2003년 동천실내빙상경기장 탄생 배경이다. 2년이 지난 2005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후 처음 참가한 나가노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서 한국이 메달을 획득하는 데 일조했다.

성 동창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

국제규격의 동천이스링크를 건립한 성 동창은 국제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설인 동천일리하우스, 주간활동센터 등을 마련했다. 또 시설에서 성장한 발달장애 아이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주거 공간으로 3~4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았다. 주거 자립 고민에서 시작한 열망이 15채 아파트 분양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한 발달장애아들이 결혼하고, 집 장만도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성선경 동창.

“동천학교 과정이 유치원부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을 이르면 세 살 때부터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바로 동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다 내 아이 같고 내 새끼라고 생각해요. 기어 다닐 때부터 본 아이들이 번듯하게 자립해서 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행복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고 아이들 덕에 그걸 이루고 있어 진정 감사할 뿐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얻어낸 감사의 시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동천학교를 지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하는 성 동창.

“나쁜 건축업자를 만났고 정부 인가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큰 공사를 앞두고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싸우려고 버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손해 보고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이 있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올 수 있었어요. 하루 손해 본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통의 순간 성 동창은 성경의 시편을 위로로 삼았다. 당시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모교 졸업 후 KBS와 동아방송에서 아나운서를 지낸 성 동창의 아름다운 이화인 상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이계진 씨를 비롯한 후배들이 찾아왔다

을 읽고 일기를 쓰며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성 동창. 그 시절의 보상으로 요즘은 행복의 연속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에 성공한 아이들이 보내오는 관심 때문이다.

“아이들이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살 때 인연을 맺은 대길이(이대길 씨, 47세)가 여기서 짝을 만나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저는 행복해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장애인 아이들에게 탄탄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참 행복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짓고 싶었던 문학소녀가 사람 농사를 짓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 원천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다는 성 동창. 부당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해온 그녀였다. 온전한 사랑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지칠 법한 순간, 포기할 선택하지 않은 성 동창에게서 꾸준한 인내의 미학을 배울 수 있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한국의 파브르'라 불리는 곤충학자 정부희 동창

꽃과 자연이 운명처럼 삶에 들어오다



'한국의 파브르'라 불리는 곤충학자가 있다. 곤충학 박사이자 '우리곤충연구소' 소장인 정부희(영교 85) 동창이다. 두 아들을 기르며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정 동창은 어린 이들과 함께 자연을 누비면서 '운명처럼' 야생화와 곤충들과 만나게 됐다. "아이가 생긴 후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돌과구를 찾은 게 '자연'이었죠.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양평 쪽으로 나가서 아이들은 풀밭에서 신나게 뛰놀게 하고, 저는 자연 속에서 답답함을 풀었죠." 그렇게 시작된 자연탐사는 가족의 유적답사로 수년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폐사지(절터)에서 풀꽃을 봤는데, 이름 모를 풀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야생화와 곤충에 대한 호기심의 출발이었다. "왜 시작했냐고 질문을 받으면 그냥 운명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꽃과 자연이 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30대 초반에 시작된 야생화에 대한 호기심은 서너 해를 지나면서 곤충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궁금했어요. 작년에 봤던 애(곤충, 벌레)랑 비슷한 아이가 이 식물 위에 있네. 애는

누구지? 이름이 뭐지? 왜 다른 데 안 가고 이 꽃에만 찾아오는 거지? 식물과 곤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곤충들은 마치 공식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찾아오는 '편식쟁이'들이거든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구할 수 있는 책, 도감 등을 섭렵했지만, 곤충은 식물보다 종의 수가 훨씬 많고 다양해서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정 동창은 생물학 대학원 진학을 마음 먹었다. "생태 쪽에 '필(Feel)'은 이미 꽃혀 있고, 자료는 부족하고! 나는 이 아이들의 이름과 살아가는 생태가 궁금한데, 대학원에 가서 이 궁금증을 풀어볼까? 시작은 이렇게 단순했어요."

늦깎이 '육두품'의 열정으로 곤충학에 몰입 : 아마추어의 호기심에서 전문가의 열정으로

마흔 살이던 2003년, 정 동창은 성신여대 대학원 생물학과에 진학했고, 2008년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꼬박 5년 동안 밤낮없는 열정으로 곤충과 함께했다. 불혹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

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 동창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리천장’을 깨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비전공자인데다,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사람이 마흔 살에 곤충 공부를 하겠다니, 주변에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당연했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에 큰애가 고1, 둘째가 초등 6학년이라서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필요한 시기였는데 애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석·박사 과정 중에 몇 번이나 공부를 접을 생각으로 연구실에서 짐을 싸기도 했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지방대에 교환학생 이수를 하러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였죠. 담당 교수님이 저랑 동갑의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애들은 어찌고 이려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아프죠. 하지만 오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작한 공부였기에 정 동창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시절을 보냈다. “스물네 시간을 정말 촘촘하게 쓰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곤충에게 내 생활의 대부분을 바쳤던 시간이었어요. 워낙 낯선 분야이다 보니 처음엔 공부 자체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진골도 성골도 아닌 육두품 출신이다!’ 하면서 죽어라 노력했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미덥지 않아 하는 주변의 시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에도 정 동창은 마음속에 한 가지 ‘꼭 잡고 가는 게’ 있었다. “저처럼 지금껏 살아온 경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딛고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소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잘 이겨내고 우뚝 서야겠다, 그래서 내 뒤에 올 후배들에게 힘을 주는 사례가 돼야겠다고요.”

국내 유일의 ‘버섯살이 딱정벌레’ 전문가로의 성장

정 동창은 딱정벌레 전문가다. 다양한 딱정벌레 중에서도 버섯을 먹이로 삼는 ‘버섯살이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가이다. “딱정벌레목(目, Order)에도 백여 개의 ‘과’가 있어요. 저는 그중 하나인 서식지가 다양한 ‘거저리과’ 딱정벌레를 연구하는데, 그들 가운데 특히 버섯을 먹고 사는 아이들 연구에 주력하고 있어요. 거저리를 비롯한 버섯살이 곤충의 생태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거저리과를 다 아우르면서, 특히 버섯살이 거저리를 키우면서 실험도 하고 연구를 하게 됐죠.” 남들보다 늦게 연구를 시작했기에 연구에 쏟을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정 동창은 “제가 연구하는 곤충은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종이라서, 제가 연구를 계속

봉화산 임도에서 황세줄나비 촬영 중



리하면 버섯살이 곤충에 대한 연구의 맥이 끊어지게 돼요.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예요”라고 했다. 연구자로서의 집념과 곤충에게 쏟는 마음의 밀도가 느껴졌다.

곤충연구가 ‘3D 직종’이라며 웃음을 짓는 정 동창은 연구 과정의 남다른 어려움을 이렇게 전한다. “거친 작업이죠. 깊은 숲속으로 채집 다녀야 하고 야외작업이 많아요. 산속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연구 샘플을 찾으려면 쉽지가 않죠. 게다가 곤충 연구를 하려면 밤낮없는 관



양평, 우리곤충연구소 전경

찰이 필요해요. 밤사이에 애벌레들이 탈피를 하거나, 어른벌레로 탈바꿈하기도 해요. 이런 변화무쌍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귀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스물네 시간 관찰해야 해요.” 그녀는 곤충들의 생태를 가깝게 지켜보고자 10년 전에 양평에 사비를 들여 개인 연구소인 ‘우리곤충연구소’를 마련했다. “제 연구지가 전국이긴 하지만 실험하고 관찰하려면 베이스캠프가 필요하겠단 싶어서 양평에 부지를 마련하고

그 안에 곤충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서 조성했어요. 그러면 곤충들이 자기 먹이를 찾아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실험실 연구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 마련한 곳이에요.”

전국을 아우르는 생태탐사와 채집, 그리고 밤낮없는 실험과 관찰, 그 열정 어린 노력은 소중한 연구성과로 이어졌다. 정 동창은 지금까지 여섯 종의 신종(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한 종)과 200종 이상의 미기록종(세계적으로는 이미 발견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견한 종)을 발견했다. 또한 이미 발견된 곤충 중에서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종들을 찾아내 정 동창이 이름을 붙여준 곤충도 600여 종에 이른다. “지금까지 한 70여 편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논문이 곧 그동안 제가 발견해온 곤충들에 대한 체계화 작업인 셈이에요. 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주관하는 생물학 학술지에서 곤충분야의 버섯살이 딱정벌레류에 대한 정리작업도 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딱정벌레들의 종류와 생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곤충의 생태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가 경험한 곤충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책 속에 담아내고 있다. 2010년 출간된 첫 번째 곤충 대중서인 『곤충의 밥상』을 시작으로 『곤충의 보금자리』, 『곤충과 들꽃』, 『버섯살이 곤충의 사생활』, 『곤충의 집짓기』 등 지금까지 약 서른 권에 이른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어렵고 딱딱한 전문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곤충의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는 다양한 안내서들이다. “곤충의 세계는 정말 자연의 신비가 넘쳐나는 마이크로 코

스모스예요.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있지?’ 싶은 경이로운 순간들이 수없이 많아요. 책을 통해 우리 곁에 사는 곤충들의 작은 우주에 숨어 있는 신비로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곤충의 대중화를 위해 정 동창은 약 7년에 걸쳐 KBS, EBS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곤충의 생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했고, 환경단체, 숲 해설가 양성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대중서를 냈다는 것은 곤충의 대중화와 곤충 풀뿌리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하죠. 곤충에 대해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승진배,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곤충계통분류학연구실)이 생물학자로서 정 동창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둘째가 곤충학을 전공하고 지금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곤충들을 만났던 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들도 저처럼 딱정벌레류(풍뎅이붙이과)를 연구해서 채집지가 저와 겹쳐요. 덕분에 야간 채집을 가거나 혼자 다니기 무서운 외진 숲에 갈 때는 함께 다니기도 해요. 어릴 때는 제가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아들이 저한테 보호자가 돼 주죠. 무거운 짐도 잘 들어 주고, 노안이 온 저보다 눈이 밝아서 도움이 많이 돼요. 무엇보다 좋은 게, 서로에게 좋은 토론 상대이자 의논 상대라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멘토가 필요한데, 아주 가까이에 좋은 멘토를 가진 셈이죠.”

겸손한 탐구와 담담한 열정

곤충연구자로서 정 동창의 앞으로의 여정이 궁금했다. “커다란 목표나 앞으로 특별히 새로운 걸 하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지금껏 해오던 것만 죽을 때까지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종들, 관찰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미 많은 종을 찾아냈기 때문에 희귀한 아이들을 새롭게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거든요.” 작은 곤충들과 식물·버섯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미시 세계에 대한 겸손한 탐구와 담담한 열정이 정 동창이 가진 ‘계획’의 전부이다. 이 담담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정 동창은 연구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덧붙였다. “가끔가다 초심을 잃어요. 예전에는 어느 버섯을 보든 그냥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쌓인 여러 데이터, 지식, 경륜 덕분에 선입견이 생긴 탓인지 ‘아, 저 버섯은 지금 새로 난 거라, 저기엔 곤충이 없을 거야’ 하면서 스쳐가기도 하거든요.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숲속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요.”

정 동창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다. “숲속은 제 ‘샬티’예요. 숲으로 들어가는 건 제게는 ‘속세를 떠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숲에 들어가면 곤충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과 교감이 되죠. 속세는 다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뽕뽕 것 같아요. 곤충을 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마음이 그저 편하고 너무 흐뭇해요. 이 느낌을 감히 ‘힐링’이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 힐링 상대가 아니거든요. 저와 ‘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1

모교 총장 후보 추천 선거 논의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0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한은주(특교 79) 부회장이 정기 임원회를 이끌었고, 모교 총장 후보 추천 선거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데 꼭 방문해서 투표해야 하는지”(황미경(약학 86) 약학대학 회장), “각 학과에 추천 인원수 안내 시에 15명으로 하는지 20명으로 하는지”(윤금진(영교 80) 사범대 회장),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오래된 학과와 신생 학과의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지”(장미현(건축 00) 공과대학 회장)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동창위원장 김구슬(법학 93) 재정부장은 “교수 및 교직원 은 온라인 선거를 원하였으나 학생들은 현장투표를 원하였으며, 규정에 의하면 원칙은 직접 투표이므로 이 규정을 사전에 바꾸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인단은 각 과별

형평성을 고려해 15명~20명, 동창 배출 수가 적은 학과의 경우 15명에 미달되는 이유를 밝혀서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총장후보 직선제의 1인 1표에서 교수는 970명이 1인 1표로 인정되지만, 동창의 참여 비율은 2%라서 1,000명을 구성해도 1인이 0.002표가 되어 총동창회의 의견이 의미 있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사립대의 총장 선출은 재단의 고유권한이며 후보 선출 과정에 동창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주 부회장은 “최소 1,000명이 되어야 모집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투표율이 높아야 다음 선거에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이화의 역사’를 알리는 공연 준비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11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임원들은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 대해 주요 안건으로 토의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그날 한국음악과 강효주 교수의 지도 아래, <이화SORI-이화 역사를 비추다>를 주제로 하여 13명의 연주자가 참여해 다양한 형태(단독 공연 및 객석과 함께하는 캐럴)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안경희(법학 86) 법대·법전문 회장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재학생 및 해외 동창들에게도 공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임복희(행정 93) 사회대 회장은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처럼 매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총동창회 사

업으로 발전시켜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대해 안내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총동창회 스티커를 붙인 과자를 준비해 예배에 참석하는 재학생 1,500명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선교부에서 800부의 기도수첩을 제작하고 있고, 성탄을 맞아 140여 명의 선교사동창들에게 기도수첩과 동창수첩, 손편지와 선물을 보낸다고 설명하며 성탄 헌금을 당부했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회칙 제7조 3항, 회장단추대위원을 선임하는 ‘선출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선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3명, 대학(원) 회장 5명 등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여기서 ‘회장단추대위원’ 7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알렸다.

— 3 —

제18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동창 대상 정책 토론회 열려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4시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정책토론회(동창 대상)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총동창회는 정책토론회를 위해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후보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각 단과대학 회장들을 통해 사전에 받은 뒤 내용을 정리해 ▲이화의 위상 강화에 관하여 ▲학교와 동창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화의 현안에 관하여 ▲재정 확충에 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에 관하여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약 2시간가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7명의 총장후보(임혜숙·이향숙·이선

희·박영미·김영주·김정선·강민아 교수)가 참석한 이날 정책 토론회는 동창들의 현장 참관도 가능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편 투표 결과 다수 득표한 2명의 후보(이향숙·김정선 교수)가 이사회에 추천됐고, 이사회는 이향숙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1986년 이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향숙 교수는 이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이대 수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등을 지냈고, 2017~2018년 여성 최초로 대한수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 4 —

12월 정기 임원회로 2024년 공식 일정 마무리

2024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2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먼저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좋은 위치의 테이블에서도 사회자의 멘트가 들리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시끄러웠다”, “음향 시설을 개선해 명확

12월 정기 임원회를 마친 총동창회 임원들



히 전달되도록 하면 좋겠다”(우미형(의직 77) 생활 환경대 회장, 정순돌(대학원 91) 대학원 회장, 윤금진 사범대 회장) 등 음향에 대한 아쉬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음식이 양이 적고 메뉴 구성이 아쉬웠다”, “이화SORI 공연 외에 다른 공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화 역사 퀴즈의 당첨금이 적다”(김곡미(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회장), “적은 금액으로 다수가 행운선물을 받도록 배려하면 좋겠다”(윤금진 사범대 회장)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대해서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당일 현금 1,400여 만 원이 모여, 동창 선교사에게 선물 140여 개를 발송했다고 보고했다. 강승주(조소 87) 조형대 회장은 발레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무척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회장단추대위원 인준 절차를 보고하고, 11명의 선출위원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7명의 추대위원을 선출했다고 알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추대위원은 졸업 대학과 연도별로 배정하였다고 전하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대외비 날

인을 받은 후 전원 동의를 거쳐 인준되었음을 발표했다.

또한 ‘영원한 이화인’의 정확한 의미, ‘총동창회’ 및 ‘동창회’의 구분, ‘동창’의 용어 사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당부도 있었다. 김영주(유교 71) 고문은 ‘영원한 이화인’은 ‘올해의 이화인’처럼 매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 학과를 대표해 한 명씩 ‘추대’하는 것으로, ‘수상’이 아닌데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상’이라고 표기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길 당부했다. 남상택(물리 74) 고문은 ‘총동창회’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만 사용하고 각 단과대학에서는 ‘동창회’라고 칭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동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동창’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답소를 나누며 2024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부 소식 —

스크랜튼상 수상 소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여성 정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며,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아, 졸업 후 정치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경제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여성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친권을 잃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저는 “제 일도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의 권익을

돌본다는 거냐?”라는 자괴감에 빠져 정치를 그만두고 한국을 떠나며, 다시는 여성에 관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직원이 되어 아이티에 가게 된 저를 유엔에서는 여성부로 보내, 여성에 관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를 그 땅에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었지만, 거기에 더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 아이



많은 동창이스크랜튼상 시상식에서 김 동창을 축하하는 모습

들조차도 키울 수 없는 저에게 남의 아이들을 돌보고, 다시는 여성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저에게 여성들을 돌보라는 사명은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기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응해왔지만, 늘 제 안에 “그런데, 왜 아이티 인가요?”라는 질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여대 선교부에서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당시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를 스크랜튼 여사 기념관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아이티에서 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제가 이화여대 창시자인 스크랜튼 여사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아이티에서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아들은 병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그 일들을 아이티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제가 이화여대를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이미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의 행적들이 이미 제 안에 인장처럼 각인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제 관점에서, 스크랜튼 여사의 업적은 이화여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양성되었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화의 선교사들이, 마치 민들레 흩날려 흩어져, 전 세계 각지에서 스크랜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크랜튼 여사의 한 열매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저는 너무 지쳐서, 마치 로템나무 밑에 누워 있던 엘리야처럼 더 이상 선교사역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님께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회장님이 신강덕영 이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한 것처럼, 저를 위로하고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사명을 수행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가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셨을 때, 아무도 이 편지에 반응하여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화여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아이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납치와 살인과 공포로 가득한 아이티 현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이티 사역자들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이들이 없다면, 오늘의 헬렌 선교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영광스러운 이 상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 김혜련(헬렌, 정외 88, 동창 선교사)

모교소식

1

모교 연구자 39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모교는 '이화 프런티어 10-10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창의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정부 주요 지원사업 선정 및 세계 최정상급 국제 논문 게재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와 세계적 출판기업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2023년 인용 데이터 기준)에 모교 연구진 총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9명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교육학과 리처드 라이언(Richard M. Ryan) 초빙석좌교수는 세계 상위 0.01%의 최정상급 연구 실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

교육 심리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라이언 교수의 논문 피인용 횟수는 무려 세계 상위 0.01%에 달하며, 세계 상위 2% 연구자 중에서도 세계 종합순위 16위, 국내 대학 소속 교원 중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로체스터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그는 모교 교육학과 프런티어 10-10 사업단(사업단장 김안나

교수) 초빙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윤여민 석좌교수(환경공학), 김광명 석좌교수(약학), 올리버 리치몬드 초빙석좌교수(국제학), 김희정 초빙석좌교수(심리학), 김은아 초빙석좌교수(물리학), 수니치 후쿠즈미 교수(화학·나노과학), 박태현 교수(식품영양학) 등 이화 프런티어 10-10사업 초빙석좌교수 8명을 비롯해, 형광화학센터 및 분자인식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11년 연속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에 선정된 윤주영 석좌교수(화학·나노과학)와 산소화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남원우 석좌교수(화학·나노과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자 총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2

글로벌 리더와 만나다: '기후·자연·개발' 간담회 개최

모교 김은미 총장과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 영국 외무장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탄녹위) 공동위원장은 10월 21일(월) 오후 2시 중강당에서 '기후·자연·개발'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안보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모교 방문을 희망하여 성사됐다. 모교는 국내 최초로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공을 설립하고,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은미 총장이 좌장을 맡아 파이어사이드챗(Fireside Chat)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외교부 및 GGGI·



기후·자연·개발 간담회

GCF·SFOC 등 유관기관 인사를 비롯해 신경식 연구 대외부총장, Brendan M. Howe 국제대학원장, 김인 한국제철장등 교내 보직자, 그리고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담회에서 데이비드 래미 장관은 “기후와 자연 문제로 갈등이 치열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와 세계 각국이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경제국으로 전환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저력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분야에서 영국이 이룬 실적과 재산립화를 위한 한국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다”며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김상협 2050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원의 확대에 힘입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SMR·해상풍력·그린수소·CCUS·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을 친환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는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공을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학교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대담을 계기로 한국 대학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및 실천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패널 발표에 이어 모교 국제대학원 및 정치외교학과 재학생과의 질의응답이 펼쳐졌고, 학생들은 미 대선 결과가 국제 기후 협력에 미칠 영향,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모교는 2017년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을 신설하고,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및 기상청 기상·기후 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관련 분야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2021년에는 금융감독원, 주요 국내 기업,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프런티어-1.5D’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 연구를 선도하며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3 —

2024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이화인 8명 합격

2024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구 행정고시)에서 모교는 총 8명(일반행정 4명, 재경 1명, 국제통상 2명, 검찰직 1명)이 선발됐다.

5급 행정직에서는 김하늘(행정)·박수진(행정) 학생, 송지혜(융합보건 17)·이정원(정외 24) 동창이 일반행정직에, 홍서진(간호 19) 동창이 재경직에, 김미연(경제 24) 동창과 이승민(사회) 학생이 국제통상직에 합격해 다양한 직렬과 전공에서 고른 합격자 분포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1년에 단 2명만 선발하는 검찰

직에 김소희(커미부 24) 동창이 합격해 모교 출신으로는 2015년 이후 두 번째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2차 합격자 8명 전원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인재개발원(원장 서선희)은 3차 면접 대비를 위해 모교 교수진과 합격선배가 지도하는 모의면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차례 진행된 '교수지도 모의면접'에는 조정래(행정학과)·민병원(정치외교학과)·김세원(경제학과)·안동인(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각분야별 예상 질문과 답안을 실천처럼 꼼꼼히 지도했으며, 2023학년도 5급 공채 합격자 선배들도 '합격선배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은미 총장도 격려 카드와 응원 패키지를 통해 수험생들을 향한 모교의 따뜻한 응원을 전달했다.

국가고시 합격자 배출에서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모교는 2015년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및 행정고시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자 배출, 2016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명 배출, 2016년도 행정고시 재경직렬 수석 배출,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교육행정직 수석 배출, 2021년도 입법고시와 5급 공채 동시 합격자 배출,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일반행정직 및 교육행정직 수석 배출, 2023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수석 배출 등 국가고시 여풍을 주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4

이화인사역량 강화 인프라 '해동 AI 스퀘어' 현판식 개최

모교는 9월 30일(월) 중앙도서관 1층에서 '해동 AI 스퀘어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

는 여성 AI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학습공간 조성을 기념했다. 해동 AI 스퀘어는 대한민국 이·공학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및 산업 기술 진흥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김영재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대덕전자 대표)은 2023년 12월 기금전달식을 통해 해동 AI 스퀘어 조성 기금 5억 원을 모교에 전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교는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한 노트북실 및 자료실을 리모델링하고, 설비를 교체하여 '해동 AI 스퀘어'로 새로이 명명했다.

이날 열린 제막식에서 김은미 총장은 "모교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해동 AI 스퀘어를 조성해 주신 덕분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모든 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나 교류하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해동 AI 스퀘어가 AI 분야 여성 인재 진출 확대, AI 기술의 다학제적 확산, 젠더적·인본주의적 관점 등 AI에 대한 규범적 연구의 활성화 측면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김영재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고(故) 김정식 이사장님이 가지셨던 '기술을 위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이은 또 하나의 공간을 이화여대에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미래사회의 주역들의 핵심 역량이 될 AI 기술을 직접 다루고 탐구하여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1991년 고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설립하여 지난 33년간 해동상 제정 및 수여, 각 대학 내 창의 학습공간 마련,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여성 공학도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지난 2019년에도 모교 공과대학 내 해동창의학습공간 조성을 후원한 바 있다.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 임복희(행정 93)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

10월 24일(목) 정오, 샛별로 압구정점에서 사회과학대학 회장단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복희 회장과 각 과 동창회장 조희수(커미부 86)·김희정(정의 88)·라현정(심리 91)·최진경(경제 91) 동창 및 사회학과 조성남(사회 77) 회장 위임에 의한 대리로 부회장인 이재완(사회 84) 동창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소개로 시작하여 각 과 동창회 소식 및 '2024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 100매 배부 그리고 총 동창회 사업 관련 의견 등을 나누었다.

회장단 정기 모임에 참석한 사회과학대학 동창들



자연과학대학

회장_ 최경임(물리 85)

가평에서 가을 야유회

10월 17일(목),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번 야유회는 5개 학과 103명의 동창이 함께하였다. 정재원(수학 88) 선교부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최경임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최경임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은 선후배 동창이 참석해 주어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모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향숙(수학 86) 동창의 인사말과 이화의 현실과 미래 비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숙희(물리 87) 총무의 진행으로 제22대 자연과학대학동창회 임원진과 일정 소개를 마치고 단체 사진 및 학과별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어서 잠깐의 수목원 산책 시간을 가진 후 수목원 내에 있는 한식



가을 야유회에 참석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당 '푸드가든'에서 정갈한 한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선후배 간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후에는 '가드닝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유리병에 유목, 이끼, 고사리를 활용해 푸른 숲을 연출하는 '이끼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잠시나마 휴과 모래, 풀을 만지며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만든 작품들은 예쁘게 포장해 각

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엔 본격적으로 수목원을 둘러보았다. 나지막한 산자락에 둘러싸여 아늑함을 자아내는 수목원에는 다양한 수목들과 가을꽃들, 한국의 정서가 한껏 느껴지는 정자와 연못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전통 한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동창들은 한껏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무사히 가을 야유회를 마쳤다.

음악대학

회장_정소희(작곡 89)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

11월 20일(수) 음악대학 동창회 회장단(정소희 회장, 박연희(관현 89) 부회장, 진경진(성악 88) 성악과 회장)은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를 드렸다.

김영의(음악 29, 1908~1987) 선생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한 후 1947년 미국 퍼시픽 음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이후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대학 학장, 한림원장, 학교법인 상무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모교 음악대학 내에는 김영의 선생의 뜻을 기리는 김영의홀이 있다.

김영의 선생 추모예배에 참석한 음악대학 회장단



경영대학

회장_황진선(경영 90)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행사 및 60주년 기념홀 완공

경영대학 동창회는 경영학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환갑의 의미를 새로운 도전, 새 출발로 정하고, 경영대학이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화·신세계관의 경영대학 도서관을 포함한 1층 리뉴얼을 위한 '60주년 발전기금 6억 원 목표'를 수립하였다. 3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필름포럼, 이화 교정 걷기 행사, 리마인드 졸업, 기부 골프 행사, 바자회 등의 모금 활동을 전개하면서 11월 기준으로 '60주년 발전기금'이 9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과 전·현직 교수님들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져서 이루어낸 감사의 성과이다.

이화 경영 동창회 운영위원들의 아이디어로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자랑스러운 순간을 기념하면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후배들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자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부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과 기대가 담긴 투자였다. 이화 경영을 사랑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보여 준 열정과 관심은 '60주년 기념홀'을 탄생시켰고, 이화·신세계관 1층을 단순한 공간 이상으로 탈바꿈시키며, 11월 18일(월) 완공 예배까지 할 수 있는 사랑과 경험, 감사의 공간으로 발전하게 해주었다.

이화 경영은 학창 시절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했던 장소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아 준 사랑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최신 지식에 접근하고, 더욱 폭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재학생 후배들이 영감을



10월 31일(목) 열린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홈커밍데이 행사

받고, 이화 경영의 자부심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선후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응원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더욱 뜻깊고 감사한 글로벌 공간이 된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후배들의 공부 환경은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정성으로 모아진 결과여서 더욱 감사한 일이다.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더 큰 꿈을 위해, 또 다른 세대의 꿈을 위해 이화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함께 응원하며 기대해 본다.

의과대학

회장__임선영(의학 82)

가을 문화 산책으로 풍성한 하루

10월 20일(일) 영녕릉 세종대왕 유적지구와 쉬자파크에서 임선영 회장과 곽영신(의학 63) 동창, 유

가을 문화 산책을 다녀온 의과대학 동창회



경하(의학 84) 이화의료원장 등 60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을 문화 산책을 개최하였다. 이를 전의 폭우를 끝내고 먼지 하나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왕의 산책길을 관람하고 쉬자파크에서 산책과 우애를 다졌다. 설원 다식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푸짐한 선물과 역사의 설명까지 풍성한 하루를 보냈다.

간호대학

회장__정승은(간호 86)

대바자회 및 단합대회

9월 10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열렸다. 간호대학 동창회는 로코팝 대표 마송이(간호 98) 동창이 선보인 프렌치 감성의 주얼리와 잡화, 그리고 김숙영(간호 90) 동창이 시중가의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기부한 닥터 디퍼런트 화장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그 외에도 인크(INC) 커피 시음 및 판매 부스를 마련하여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행사에는 여러 학과의 학생과 교수, 교직원과 간호대학 동창들이 찾아와 구매를 통해 동창회 기금에 동참하였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9월에 동창회 총무단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10월 26일(목) 제천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제8회 간호대학 동창회 단합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승은 회장의 주도로 3회부터 58회까지 총 26명의 동창들이 함께하였다. 제천 배론성지의 단풍길을 걸으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선후배 간의 귀한 만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단합의 시간을 쌓았다. 또한, 정승은 회장이 정성스레 준비한 이화 기념품과 이광옥(간호 61) 명예교수가 준비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한 가을 양식이 어우러져 덕담을 나누는 시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약학대학

회장_황미경(약학 86)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10월 18일(금)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61명의 동창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이대 약대 동창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황미경 회장의 개회사, 이화정(약학 90) 신임 학장의 격려사와 내빈의 축사로 시작된 총회에서 졸업 50주년을 맞은 약학 25회·제약 4회 동창들의 재상봉 및 축하식이 있었다.

약대의 위상을 높인 김춘자(약학 63)·서정숙(약학 74)·김상희(제약 76)·문예실(약학 82)·박병희(약학 84) 동창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영원한 이화인 장우현(제약 74) 동창, 올해의 이화인 김경희(약학

총회를 개최하고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축하한 약학대학 동창회



94)·유혜중(제약 94) 동창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또한 건축 기금 고액 후원자인 김순영(약학 62)·정수자(약학 64)·황민자(약학 64)·장충자(약학 74)·이숙희(제약 75) 동창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축하공연에서 3인조 크로스오버 팝페라그룹 '인치엘로'가 화려한 무대를 펼쳐 주어 축하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우미형(의직 77)

가을 야유회

10월 24일(목) 33명의 동창들과 이재효갤러리와 세미나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재효갤러리에서는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재료 고유의 성질과 아름다움을 부각할 수 있는 형상을 다양하게 제작해온 이재효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이재효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재효 작가와 함께 작품과 그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의 사인을 받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물과 연의 정원 세미나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국사원, 장독대 분수, 흥련지, 빅토리아연못, 세한정, 배다리, 두물머리를 둘러보았다.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재효 작가와 함께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__헌혜경(76)

'국문인의 밤'에서 장학금 수여

10월 10일(목) 국문과 동창 70여 명이 양평 소나기 마을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에서 시작된 양평 '소나기 마을'의 '황순원 문학관'은 우리를 문학을 꿈꾸던 소녀 시절로 돌려놓았고, '소나기 마을' 촌장의 특별한 강의도 들었다. 황순원 문학관 곳곳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맛난 점심도 푸짐하게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내추럴 가든 529'에서 잘 다듬어진 꽃들과 나무에 둘러싸여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겼다.

소나기 마을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온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11월 7일(목) 6시 30분부터 열린 국어국문학과 '국문인의 밤'에서 국문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부활한 국문과 동창회 장학금은 매년 두 명의 학생에게 150만 원씩의 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국문과 동창회 장학금이 앞으로 동창회의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동창회 임원진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했다. 국문과 밴드 '아해들'의 연주도 신선했고 젊은 재학생들의 활기도 함께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어영문학과

회장__정경숙(79)

영학회 추계학술대회

9월 10일(화) 총동창회 바자회에서 5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판매 대금은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영학회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분당에 있는 예봄교회와 청주에 있는 북한선교 교회에 기부했다.

9월 23일(월) 사직동 운경고택에서 영문과 기간사들의 단합을 위한 아우팅이 있었다. 운경고택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미술가 이완의 개인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관람하고 중간에 오찬 시간을 구성하도록 기획했다. 이는 동창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오

운경고택에서 기간사 단합 아우팅을 진행한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전·오후 관람을 선택하고 오찬 시간에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었다.

11월 9일(토)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학관 251호에서 영화회 추계학술대회가 있었다. 이날의 포럼은 전봉관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의 '한국 근대의 사랑, 가정, 일상'이라는 근대의 생활미시사를 중심으로 한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영화회 동창들 69명이 모여 강연을 듣고, 동기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진관 자연습씨에서 오찬을 했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 송기정(80)

특강과 함께하는 정기 간사회

10월 16일(수) 한일관 압구정점(대표 김은숙(84))에서 정기 간사회를 가졌다. 간사 32명이 참석한 10월 간사회에서는 세무사 김의련(93, 청운 세무경영 컨설팅사무소 대표, AICPA) 동창이 '상속·증여 절세 전략'에 관한 특강을 했다. 지난 6월 간사회 때는 시니어 모델 윤영주(67입, 05줄) 간사가 본인의 저서 『칠십에 걷기 시작했습니다』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8월 간사회에서는 김은정(88, 유튜브 'EJ의 웃이야기', 라이선스 패션매거진 1세대 에디터) 간사가 '거부하기 힘든 프렌치 스타일'을 주재

간사회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로 강의한 바 있다. 2024년도 아미회 간사회에는 1기부터 53기까지 총 68명이 등록되어 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__ 박지나(90)

문화체험행사 겸 동창회 기간사 모임

10월 5일(토) 강남구 도산대로 호림아트센터에서 '향, 푸른 연기 피어오리니'라는 전시를 관람했다. 팀별로 나눠 도슨트의 해박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선조들의 향과 더불어 문화를 즐기던 풍류를 자세히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관람 후 인근 중식당 '보다'에서 식사와 더불어 3분기 기간사 모임을 진행했다. 문화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기간사들과 동창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특히 21학번 신입 동창도 참석하여 더 의미 있었다. 모임에서 앞으로의 기간사 모임에 대한 논의와 2024 송년회 준비에 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논의되었다.



문화체험행사와 기간사 모임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기독교학과

회장__ 한은주(87)

함께하는 동창회 아유회

10월 17일(목) 동창회 아유회가 있었다. 매년 이 아



가을 아유회에 참석한 기독교학과 동창들



유노쿠니노모리(전통공예마을)를 탐방 중인 사학과 동창들

유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정을 맞춰 귀국하는 동창도 있을 정도로, 결코 놓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동창회 아유회이다. 22명의 동창이 버스에 올라 1시간 40분 정도 달려 강원도 횡성호수 산책길 입구에 도착하였다. 아직 단풍을 즐기기에는 이른 시기라 한적하였고, 호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동창들은 넓고 푸른 호수에 그대로 비치는 산세를 음미하며 많이 웃고 걸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만의 가을 소풍이었다. 더덕 돌솥밥 정식은 눈과 입을 동시에 자극하며 건강한 자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어 행복의 기운이 뿜뿜 솟아올랐다.

흥이 많은 84·88·89학번 후배들 덕분에 실컷 웃을 수 있어 참 좋았다. 또한 71학번 선배들이 올해도 참석해 주어 더 빛나고 그윽했던 아유회가 되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을 또다시 기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사학과

회장__ 최유리(84)

가나자와로 첫 해외 답사

9월 26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동창들은 서로 반갑게 안부를 확인하며 사학과와 동

창회 관련 자료의 기록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로 선배들의 구술 채록을 구상하고 있는 '선배와의 대화' 프로젝트, 12월 발간 예정인 《사우회보》 발간 진행 그리고 사학과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0월 24일(목) 서대문의 사조미가에서 간사회를 열고, 11월 진행될 일본 가나자와 답사 일정과 '이화인의 밤' 행사, 12월의 송년회 등을 안내하였다.

11월 9일(토)부터 12일(화)까지 나흘간 동창회 간사 18명이 일본 에도 시대의 중심 도시였던 가나자와(金沢) 지역을 답사하였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진행되는 동창회 정기답사인데 처음으로 해외 답사를 기획하였다. 유서 깊은 사원인 나타데라(那谷寺), 일본의 3대 정원의 하나로 꼽히는 겐로쿠엔(兼六園)을 비롯하여 21세기미술관, 이시카와현립미술관(石川県立美術館)과 히가시차야거리(ひがし茶屋街), 나가마치 무사의 집(長町武家屋敷跡) 등을 탐방하며 전형적인 일본의 중세 도시를 느낄 수 있었다.

행정학과

회장__ 임복희(93)

학과 창설 43주년 기념행사

11월 18일(월)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행정학과



모교 EOC 이심봉홀에서 열린 행정학과 창설 43주년 기념행사

창설 4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제44대 학생회 강유진(재학생, 22학번)·서민지(재학생, 22학번)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이승혁 학과장의 개회사, 임복희 동창회장의 축사,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인 양한주(23) 동창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양한주 동창은 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원 입소 생활과 5급 사무관에 임용되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간단한 석식과 더불어 이어진 2부는 '교수님들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법무법인(유) 바른의 변호사인 정은하(18) 동창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후 퀴즈 및 행운권 추첨으로 2부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행정학과의 힘찬 행보를 기원하였다.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최선열(영문 70) 명예교수와 학부 교수들,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커미부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았다.

이정아(95)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의 밤은 조희수 회장의 개회 인사와 내빈 소개에 이어 커미부 소개 영상과 해외 동창(홍시내(02) 동창)의 영상 인사 등 다채롭게 이어졌다. 동창회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저널리즘에서의 AI의 활용과 저작권(나민서, 김민아)', '3D 콘텐츠를 통한 동물의 존엄성 보호(최유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후배 학부생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었다.

만찬에 이어 박화숙(74) 동창이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보다>로 감흥을 더해 주었다. 조희수 회장이 정성 들여 준비한 그림을 내놓아 깜짝 기부 릴레이를 진행했는데, 많은 동창들이 행복한 나눔 기부에 참여해 커미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 주었다. 그 외 책 선물과 칭찬 릴레이, 신소리(11) 동창이 준비한 기념품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모교 교가를 함께 부르며 아쉬움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_ 조희수(86)

커미부 동창회 송년의 밤

11월 20일(수) 오후 6시,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4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동창회

사회학과

회장__ 조성남(77)

한가원 출범 4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

1984년 이화 사회학과 동창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회학과 동창들

해직 중이던 이효재 교수를 모시고 설립한 (사)한국 가족문화원의 출범 40주년과 이효재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소멸위기, ESG에서 답을 찾다』 출판기념회가 11월 2일(토) 모교 대학원 별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초대 소장인 공정자(62) 동창과 전 이사장인 장의순(62) 동창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들, 김정선(83) 현 이사장, 박현선(86) 원장 및 연구진과 많은 동창, 제자들이 참석하였다. 전 이사장이기도 한 조성남 회장의 축사에서는 한가원과 사회학과 동창들과의 인연의 역사가 소개되며 축하를 나누었다. 저서 『국가소멸위기, ESG에서 답을 찾다』는 극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젊은 연구진들의 연구결과 보고서와 논문과 함께 이효재 선생의 웰에이징 모범으로서의 노년기를 조망한 글이 실렸다. 특히 저서의 표지를 전정식(62) 동창의 민화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동창회와의 인연이 돋보인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 김정진(80)

‘이화인의 밤’에서 송년 모임

11월 25일(월) 1970년 졸업 동창부터 2004년 졸업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동창까지 선후배 동창들이 ‘이화인의 밤’에 참석하여 우의와 존경을 나누는 기쁜 시간을 보냈다.

물리학과

회장__ 김수미(90)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발족식

9월 10일(화) 총동창회 바자회 후 물리학과 정기 간사 회의 및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물리학과 동창회 임원진과 8기 기간사 김정자(68) 동창 외 각 기간사 30여 명이 참석하여 결산 보고 및 향후 활동에 대한 기간사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5년 5월 16일(금)로 예정된 70주년 기념회를 위한 발족식에서는 70주년 기념 행사의 개요를 공유하고, 동창의 밤 행사 준비 일정을 토의하고, 행사 집행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아유회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10월 12일(토)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열렸던 자연과학대학 아우회에는 20여 명의 물리학과 동창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였다.

생명과학과

회장__ 박미향(89)

정기 기 대표 회의 개최

11월 15일(금) 기 대표 회의 및 임원회의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진도올돌목가는길에서 개최하였다.

참석한 동창은 12명으로, 최순자(67, 13기 대표)·이송자(67, 13기)·안경숙(70, 16기 대표)·송기선(72, 18기 대표)·변희숙(73, 19기, 이생회 고문)·최명선(77, 23기 대표, 이생회 고문)·오영옥(80, 26기 대표)·오영미(87, 33기, 전 이생회 부회장)·박미향(89, 34기 대표, 이생회 회장)·황유경(89, 35기, 이생회 부회장)·정혜영(90, 36기, 이생회 총무)·남미경(90, 36기 대표, 이생회 회계) 동창이다.

2024년 이생회 사업보고와 각 기 대표의 일 년간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순자 고문의 이생회 활동 사진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은 선물을 나누고, 이생회 장학생 및 '선배라면' 장학생의 감사 편지를 공유하며 후배들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였고, 이송자

기 대표 회의에 참석한 생명과학과 동창들



동창의 서예대상을 축하하였다.

이생회에서 후원하는 이화바이오브리지(EBB)의 멘토-멘티 활동 보고(황유경 동창)가 있었으며, 자연대 출신의 예술인 모임을 위한 논의(박미향 회장 발의)를 하였으며, 이생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과 의견을 취합하였다.

피아노과

회장__ 문주원(88)

임원회의에서 '100주년 기념음악회' 논의

2025년 '이화여대 음악대학 설립 100주년 기념음악회'의 연주와 기획을 위하여 윤금희(66) 교수를 모시고 피아노과 임원들이 회의를 하였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피아노과 동창들

작곡과

회장__ 원현미(88)

신음악회 가곡발표회

11월 25일(월), 신음악회(회장 이남림(82))는 '그리움, 추억 그리고 새노래'라는 제목으로 모교 대학원 관 중강당에서 기획가곡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고 김순애(음악 41, 전 모교 교수) 교수와 이영자(음악 54, 전 모교 교수)·나인용(연세대학교 명예교



‘그리움, 추억 그리고 새노래’ 가곡발표회

수)·홍성희(61, 모교 명예교수)·강순미(71,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 그리고 그 제자와 후배들의 열일곱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 이화의 가을 교정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동양화과

회장 _ 김지연(93)

총동창회 대바자회

9월 10일(화)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모교에서 개최되었다. 동양화과에서는 설화수, 앵콜스 디어니터 울 미일드 워시, 오대쌀 등을 온라인 주문으로 선판매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임원들과 동창회 선후배들이 소장한 새 물품을 기꺼이 기부하여 아나바다 바자회로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키링, 휴대폰 액세서리, 애견 소품 등의 다양한 물품들도 현장에서 합

대바자회에 참여한 동양화과 동창들



계 판매하였다.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원한 음료수로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었고, 주변 과에서 준비한 물품들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서로 구입하는 넉넉한 인심을 보였다.

서양화과

회장 _ 송은주(86)

재학생 행사 ‘서양화가 빛나는 밤에’

11월 1일(금) 조형예술관 A동 524호에서 서양화과 재학생들을 위한 행사 ‘서양화가 빛나는 밤에’가 열렸다. 졸업생 중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최지원(19) 작가, 김나형(02) 디스위켄드룸 대표, 금지원(17) 뉴욕 독립큐레이터, 송은주 동창회장의 순서로 초청 강연과 레크레이션 순서가 있었다. 송은주 동창회장은 강연에서 서양화과 1, 2회 졸업생인 신금례(49)·한진수(49)·이경순(50) 동창의 인터뷰와 모교인 이화여대와 서양화과 역사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대학이며, 1949년 7월에 서양화과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적 사실을 재학생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1·2회 졸업생들의 인터뷰에서 당시 물감이나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환경과 미술 강의 시간의 에피소드, 이대 교정과 최초의 교내 전람회, 졸업 후 1949년 대원화랑에서 열린 최초의 여성 미술가들의 전시회를 소개하였다.

또한 조형예술대학 졸업전시회가 11월 26일(화)부터 12월 1일(일)까지 열렸다. 서양화과 3층 복도와 실기실에는 개성을 담은 각각의 부스에 독특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올해에는 페인팅 대형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며, 미디어 작품, 복합 매체를 활용한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졸업전시회에



서양화과 4학년 재학생들과 교수, 동창회 임원들



'뮤지엄 산'으로 야외회를 다녀온 조소과 동창들

서 각 과 1명을 선발하여 이화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어 주는 비전이화 전시회 공모를 위해 작품 설명서를 제출하는 재학생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소과

회장 __ 오주연(90)

'뮤지엄 산'으로 문화·예술 아우회

9월 10일(화)에 총동창회가 주최한 대바자회에서 조소과 동창회는 가죽공예(오주연(90)·윤 영(90) 동창), 작품 액세서리(호혜란(88)·박은선(98)·차경화(00)·윤수진(01) 동창), 작가 소품(신혜용(94) 동창), 주얼리 브랜드 LUMINATI(이우현(15) 동창) 등 다양한 제품으로 여러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동창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였다. 10월 17일(목) 서울을 벗어나 원주의 '뮤지엄 산'에서 문화·예술 가을 아우회를 가졌다. 조소과 선후배 동창 36명이 참여하여 우고 론디 노네의 전시와 제임스 터렐관을 관람하며 가을 풍경 속에서 예술의 깊이를 함께 느꼈다. 이번 아우회는 졸업 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창도 그렇지 않은 동창도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개별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시와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동창들 간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이상영(94)

제9회 이화섬유예술전

10월 28일(화)부터 11월 1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섬유예술과의 아홉 번째 동문전인 이화섬유예술전이 개최되었다. 46명의 동창이 참여한 올해의 전시 'Joyful Harmony'는 세대 간의 소통, 전통과 현대의 연결, 수작업과 첨단 기술의 접목 등을 독창적인 섬유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영감으로 구현하였다. 이 전시는 제1회 졸업생부터 2024년 졸업생까지 여러 세대의 동창들이 어울려 추억과 재회의 감

이화섬유예술전에 참여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정을 섬유로 표현하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11월 6일(수) 한우리 본점에서 이효범(61)·김혜순(66)·오복환(66)·윤귀영(71)·장영란(77)·박정례(79)·봉지희(85)·박희전(90)·이상영(94)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예비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바자회 및 예비전 활동 보고를 하였다.

생활미술과

회장__ 김수진(94)

청년부 동창 모임 열어

9월 27일(금) 서울 용산구 소재 '드포레 와인다이닝 용산'에서 생활미술과 청년부 동창 모임을 가졌다. 김수진 회장 포함 10명의 동창이 모여 앞으로의 청년부 모임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젊은 동창들의 참여와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부 동창 모임에 참석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영어교육과

회장__ 장연희(87)

영어교육과 6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밤

11월 7일(목) ECC 이삼봉홀에서 영어교육과(학과

장 이은경)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964년 창립, 한국 중등 영어교육을 선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 온 영어교육과의 60년 역사를 돌아보며, 동창, 재학생, 교수진 200여 명이 모여 영어교육과의 발전적 미래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김은미(사회 81) 총장은 축하영상을 제작하여 보내 주었고, 박은혜(유교 83) 사범대학장, 안선희(기독 88) 교목, 윤금진(80) 사범대학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영어교육과의 역사를 돌아보고, 동창회 장학금과 교수진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이화영교인상(교육부문: 최현주(87) 성남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김소영(91) 숙명여중 교장, 학술부문: 김성연(92)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금융부문: 유명순(87) 한국씨티은행장, 언론부문: 김선희(93) YTN 디지털뉴스 팀장, 정치부문: 강선우(0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되었다.

2부 동창의 밤 순서에서는, 초대기수 구창모의 공연, 박은영(98) 동창의 바이올린 독주, 학부 영어연극 동아리 UNI의 영어 연극 <Always Bella> 공연, 동창회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1기 선배부터 재학생 후배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60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밤 행사에 참석한 영어교육과 동창들



지회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 조혜진(장미 89)

제8회 녹미전 열어

9월 21일(토)부터 9일간 LA 소재 E.K. Gallery에서 제8회 녹미전을 가졌다. 20명의 녹미회원이 작품을 전시하였고, 동창들과 지인들도 오프닝에 참석하여 전시회를 함께 축하했다. 10월과 11월은 각 지부별 모임인 LA 모임, Southbay 모임과 새롭게 결정된 Irvine 모임들이 만남을 가졌고, 골프부, 건미회, 선교부는 매월 모임을 이어나갔다.

11월 10일(일) 토렌스 장로교회에서 열린 한인 노숙인 쉼터 지원을 위한 합창제(남가주 한인 음악가

녹미전에 참가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협회 주최)에 남가주 합창단이 참가하여 20대부터 90대를 아우르는 동창들이 조화로운 합창을 이루어 냈다. 한편 동창회 임원진들은 12월 8일(일) 열리는 송년회를 위해 Fundraising 및 선물 구매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뉴욕 지회

회장 _ 김영신(독문 88)

60주년 기념 연례만찬 성료

10월 12일(토) 뉴욕 지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데이 크루즈 연례 만찬을 개최했다. 120여 명의 동창들이 함께 자리하여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화의 역사와 동창들의 자부심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뉴욕 지회는 앞으로도 동창 간의 단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임이 될 것을 다짐했다.

10월 19일(토) 2,30대 동창들이 중심이 된 'Blooming Ewha Mentoring Club'은 Eric S Kang 회계사의 뉴저지 오피스에서 재무 세미나를 열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젊은 동창들이 모여 강 회계사의 강의를 듣고, 수준 높은 토론과 열띤 질의응

데이 크루즈 연례 만찬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답을 늦은 시간까지 이어갔다. 2030 세대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그리고 주말에도 후배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진심 어린 강의를 해준 이화 가족이 있기에 이러한 멘토링 모임이 가능했다.

대전 지회

회장 __ 황순자(교육 69)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문학 토크

11월 14일(목) 동창들 12명이 대전의 한밭수목원 내 평송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평송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하였다.

이날의 모임은 2019년 3월에 결성된 이화 코르스내 독서 모임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지 5년 만이었다. 독서 모임이 출발하던 때 김병욱(충남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황순자(교육 69) 동창의 부군)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셨는데 그때 읽은 책 중의 하나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였다. 한강 작가가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반가움에 다시금 모이게 되었다. 이날도 김병욱 교수를 모셨는데, 한강의 문학이 일종의 지표가 된다면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에 근접하는 작가는 누구일까도 전망해 보며 언급된 작가들의 작품도 읽어 보기로 하고 독서 모임 재개의 계기가 되었다.

5년 만에 재개된 대전 지회의 독서 모임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회장 __ 윤지연(피아노 97)

2024년도 총회 개최

10월 19일(토) 프랑크푸르트 근교인 오버우어젤에 소재한 한국 식당에서 2024년도 총회를 열었다. 멀리 인스부르크와 독일 본, 자브뤼켄, 카셀,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15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점심 식사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로 소개 시간을 가진 후, 몇 가지 사항에 관해 토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동창들을 위해 앞으로 온라인 정기 모임도 추진해 보는 것과 둘째, 지역별 동창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공석 중이던 부회장에 김설아(피아노 94) 동창이 자원하여 참석자들의 지지 박수를 받았다.



총회에 참석한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동창들

라스베이거스 지회

회장 __ 이삼희(가정 68)

늘 부부 동반으로 모임 가져

라스베이거스 지회는 매년 동창 수가 증가되어 어느덧 50여 명이 넘었다. 전국 각지에서 은퇴 후에 이사를 오는 덕분에 동창들의 연령이 다른 지회보

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동창회에서 처음으로 동창회 회칙을 마련한 것과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리 지회의 자랑이다.

라스베이거스 지회는 모임과 회계 보고가 두 달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동창들은 자신이 낸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동창들의 반응이 좋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생일인 동창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다. 또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동창 간 소통과 모임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 있다.

멜버른 지회

회장 __ 윤숙경(간호 76)

푸짐한 선물 가득한 연말 모임

11월 25일(월) 2024년의 마지막 동창회 모임을 동창회 단골 음식점인 다올에서 가졌다. 별도의 공간에서 편안한 대화를 맘껏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모임은 회장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총무 박해주(교공 99) 동창의 경과 보고와 회계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3분 Speech 순서로 이어지며 차례대로 각자의 근황을 자세히 나누었다.

공식 회의를 마치고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이화동창》 회보와 동창수첩을 나누고, 이대 동창회 기념품점에서 구입해온 기념 선물들을 나누니, 성탄절

연말 모임에 참석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기분이 난다며 모두들 즐거워했다. 김명희(가정 66) 동창이 일년간 애써서 준비한, 빨강, 초록, 흰색 털실을 이용해 너무나도 예쁘게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꼬마 인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어 그 기쁨이 배가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지은정(간호 02) 동창의 동기인 이순연(간호 02) 동창이 새로이 참여해 모두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맞이하였다. 지은정 동창은 현재 JJ Cosmetic Clinic을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순연 동창은 Community Center Child-care에서 Diploma Educator로서 몇년간 Casual Staff로 일하다가 지금은 잠시 휴식을 갖고 있는 중이라 했다.

미네소타 지회

회장 __ 김정은(체육 90)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11월 23일(토) 김정은 회장은 집에서 조금 이른 듯한 연말 모임을 가졌다. 11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트럭으로 준비해 온 음식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낸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의 동창회 모임 및 회계보고가 있었고, 2025년 동창회의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홍선화(약학 70) 동창이 미네소타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필요한 여성 단체를 찾아 작은 도움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모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재미뽀기로 나누고, 크리스마스 배경의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연말 모임에 참석한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노래에 맞춰 가벼운 댄스 타임을 가지며, 선후배들이 함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김정은 회장이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헤어밴드 등 세심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 이영완(정외 81)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북가주 지회 주최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 벌링게임에 위치한 SFO Marriott Waterfront Hotel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모교에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온 김은미 총장을 비롯하여 한은주 총동창회 부회장, 임원, 이화역사관장, 이화의료원장, 이화서울병원장 등 많은 귀빈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참석한 동창들과 가족, 그리고 국제재단 이사를 포함한 230여 명이 대연회에 함께하였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열띤 토론과 신중한 검토 끝에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칙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정기 총회에서 이를 공식 인준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모교와 의료원 그리고 국제재단에서 온 귀빈들과 동창들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와이너리 투어 및 와인 테이스팅, 애프터는 티 파티, 샌프란시스코 일일 관광, 의료원과 역사관 특별 세미나, 주일 예배, 총장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일정 속에서 참석자들은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더 높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배일환 교수팀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 북가주 지역을 방문하여 총회에서도 특별 연주를 선보였으며, 경영학부 김효근 교수가 작곡한 <첫사랑>과 <내 영혼 바람 되어>를 북미주 동창들로 구성된 '이화 합창단'이 아름답게 연주하여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총회는 이화의 가치와 전통을 되새기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화인의 자긍심을 북미 대륙 곳곳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시애틀 지회

회장 _ 이재경(수교 80)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는 음악 강의

봄, 가을(4월, 10월) 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강의를 도서관에서 여는데 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번에는 10월 15일(화) 벨뷰 도서관에서 박명호(정의 78) 동창과 박 동창의 동생인 박길호 팝 칼럼니스트의 음악 강의가 동시에 열렸다. 오전에는 박명호 동창의 고전 시리즈 6번째 강의인 '모짜르트의 음악과 생애', 오후에는 박길호 씨의 '인문학과 Pop'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를 무료로 진행되었고, 동창회에서는 떡, 김밥,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은 1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냈는데, 봄 강의와 합하여 4,060달러를 모아 Korean Emergency Fund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적십자사에 나누어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시애틀 지회의 가을 소식지가 발간되어 동창들에게 발송하였다. 동창회 소식지는 임원진의 협력으로 발간되는데 편집에는 김성은(생미 05) 동창, 배송에는 이순덕(수학 76입) 동창이 수고해 주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는 10명의 시애틀 동창(박성숙(기독 69)·박정혜(체육 71)·임영옥(초교 71)·김숙현(간호 73)·이혜현(문정 74)·이재경(수교 80)·신옥선(외교 83)·박 경(약학 84)·신인선(외교 85)·이정열(조소 11))이 참여하였고, 탤런트쇼에 9명, 전체 합창에 6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나리(체육 92) 동창이 전문 사회자로 애써 주어 자랑스러웠다.

김예자(리아 암스트롱, 커미부 60입, 23 명예졸업) 동창은 올해에도 한 부모이면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학생에게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는데 22년째이며 누적 장학금은 50만 달러가 넘는다. 서정자(법학 63) 동창은 이민 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한국 방송을 27년 전에 출범시켜 지금까지 서북미 한인 사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방송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박정혜 동창은 남편인 사진작가 고 남궁요설 씨의 유지를 받들어 아트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 발굴에 장학금을 십수 년째 지속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영국 지회

회장 __ 홍시내(커미부 02)

추석 명절을 기념하는 동창 모임

9월 21일(토), 손선훈(영문 66) 동창이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준 덕에 런던의 코리아타운, 뉴몰든에서 영국 지회 동창들이 모였다. 비가 올까 무척 걱정했는데, 오후에는 따사로운 햇살 때문에 파라솔을 펼쳐야 할 정도였다.

명절에는 더 외로울 수 있는 타지에서 62학년부터 19학번까지 25명의 이화인이 함께 잡채, 불고기, 김치, 약과, 송편, 파배기 등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은퇴 후 옥스퍼드에서의 삶을 한국과 비교·분석해 준 정미령(교육 66) 동창, 재치

추석 모임에 참석한 영국 지회 동창들



있는 입담의 소유자 김인성(영문 80) 동창, 약과를 직접 만들어 오느라 모임에 늦은 최혜선(생명 23) 동창, 한지로 제작한 친환경 가방 사업을 시작한 김리리(중문 04) 동창,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기학 석사를 시작하는 멋진 막내 최지연(중문 23) 동창,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학업·육아 중인 동창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다섯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특히 문현수(체육 70) 초대 회장이 오랜만에 디과와 함께 깜짝 방문해 주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000년 초부터 비공식적으로 동창회 모임을 이끌어 주었던 문현수 전 회장은 내년 부활절 즈음에 집으로 명이나물을 따러 오라고 초대해 주기도 하였다. 이번 추석 모임을 계기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나 영국에 막 도착한 석·박사 동창들에게 힘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 이지은(불문 96)

동창회 기금 마련 친선 골프

워싱턴DC 지회는 10월 3일(목) 버지니아에 위치한 South Riding Golf Club에서 동창들 간 친선 골프 아우팅을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2025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의 일환으로 평소 골프를 좋아하는 동창들이 모여 화창한 날씨에 가을 골프와 선후배 간 친목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1월 19일(화)에는 워싱턴DC에 위치한 Calvary Women's Services를 방문하여 워싱턴DC 지회 내 니팅클럽(Knitting Club)에서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모자 54개와 목도리 10개를 전달하였다. 워싱턴



친선 골프 아우팅에 참가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DC 지회에서는 매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해왔다.

워싱턴DC 지회는 12월 14일(토),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에 위치한 Westwood Country Club에서 'Go Ewha, Go Forward, 2025!' 라는 주제로 동창회 연말파티 및 총회를 준비 중이다. 다양한 게임과 동창들의 도네이션으로 구성된 옥션 등을 준비했고, 2025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연말 파티를 즐길 예정이다.

인천 지회

회장__ 김자영(교육 82)

'추억의 모교 방문' 프로그램으로 캠퍼스 투어

10월 23일(수), 인천 지회 동창 18명은 모교를 찾아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억의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재학생 가이드(캠퍼스 리더)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변화된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았다. 특히, 모교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캠퍼스 투어 후에는 모교 내 식당과 카페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각자의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추억의 모교 방문'으로 옛 추억을 돌아본 인천 지회 동창들

번 모교 방문을 통해 동창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다. 이번 모임을 위해 차량 봉사와 간식 나눔을 해준 동창들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_ 서석영(정의 94)

온라인 커리어톡 및 가을 피크닉 모임 개최

9월 27일(금) 직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멘토링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커리어톡(CareerTalk)이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Financial Analyst 김미영(독문 10) 동창 및 Accountant 이혜원(경제 20) 동창이 발표했고 박지혜(간호 12) 동창이 사회자로 수고했으며, 업무 및 워라벨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9월 29일(일)에는 헤밍웨이 및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로 유명한 오크 파크(Oak Park)에 위치한 테일러 공원에서 가을 피크닉 모임을 가졌다. 도시락을 먹고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목찌빠 게임으로 즐거운 야외 나들이가 되었다.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서 개최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회장이 참석했으며, 11월 10일(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 3명을 환영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장혜주(영교 01) 동창을 선출하였다. 또한 장학·후원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선임, 2025년도 사업 및 총회 일정을 논의하였다.



2024년 가을 피크닉 모임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과 가족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김연선(특교 95)

브런치 모임으로 이화의 정 나눠

9월 24일(화) HutanKota by Plataran의 TigaDari에서 브런치 모임을 가졌다.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참석한 동창들 덕분에 한층 더 끈끈한 이화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브런치 모임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전주 지회

회장 _ 유희연(영교 86)

추억의 모교 방문

전주 지회 동창들은 10월 30일(수)에 추억의 모교, 이대를 방문하였다. 8시에 전주를 출발하여 11시 30분 모교에 도착한 전주 지회 동창들은 전주 지회에서 활동하다가 수도권으로 이사한 동창들과 합류하여 자연섬씨에서 식사를 하고 2시에 모교 투어를 하였다.

모교 투어를 통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중에도 이대 건물과 이화의 정신을 굳건히 지킨 선배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건물들에 얽힌 여러 정보도 알게 되었다.

모교 방문을 위해 찬조금을 챙겨준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어느 동창의 아들은 우산을 선물해 주었고, 서울에 사는 한 동창은 가방을 선물해 주었다. 식사 후 커피와 시원한 음료를 대접해 준 동창, 과일과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귀가하는 버스에 넣어 준 정 깊은 동창도 있었다.

10여 년 만에 가진 모교 방문 행사로 전주 지회 동창들은 서로의 끈끈한 사랑과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모교를 방문하여 캠퍼스 투어를 한 전주 지회 동창들



제주 지회

회장 _ 고화련(독문 69)

성산에서의 가을 아우회

10월 23일(수) 제주도 동쪽 성산으로 가을 아우회를 다녀왔다. 1959년 입학한 정중순(교육 63) 동창부터 1981년 입학한 동창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5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성안교회 주차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이윤희(외교 77) 목사의 안전한 여행을 바라는 기도 후 섭지코지에 있는 유민 미술관으로 출발했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뮤지엄 산책'에 참가하여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과 상설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유용한 시간을 가졌다. 민트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로 점심을 먹을 때는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대 모습에 감탄하며, 제주에 살아도 이런 호사는 쉽게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홍양자(가정 67) 동창 말에 모두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글라스하우스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섭지코지 등대에 올라가 주변의 오름을 보며 제주살이의 행복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해안도로를 따라 제주시로 이동하면서 교가 제창과 회장의 마무리 인사로 짧은 아우회를 끝냈다.

성산으로 가을 아우회를 다녀온 제주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_ 조혜라(영문 96)

50주년 기념 음악회

토론토의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해 온 토론토 지회가 5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동창, 사위, 자제들 가운데 현재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출연하여 동창회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멋진 연주를 보여준 유인희(체육 56)·홍현정(피아노 82)·김미희(피아노 83)·이영송(중음 90)·조혜령(성악 96)·강선하(작곡 99)·이상아(한음 13) 동창과 김혁(피아노), 앤드류 다오(클라리넷), Annie Kim(보컬), 김찬영(클래식 기타), 그리고 여름 내내 열심히 연습해 온 사위 중창과 동창 합창 또한 28세에서 92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른 하모니를 보여주며 음악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프로그램을 디자인 하느라 마지막 주까지 불철주야 애써 준 동창들, 음악회 행사 진행을 위해 앞장서서 모든 무대의 디테일과 안내 절차를 기획하고 운영해 준 동창들, 물심양면으로 음악회 준비를 지원해 준 선배들,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캐나다에 있는 차세대 여성 리더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행사로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입장을 허용하면서도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 토론토 지회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독려하여 '이화여대 토론토 동창회 장학금' 조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조경숙(의학 81)

소그룹 모임과 정기 모임으로 친목 증진

10월 2일(수) 필라델피아 지회의 차세대 소그룹 94 Plus 모임이 Bala Cynwyd, PA에서 열려 7명의 동창이 모여 즐거운 친목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4일(토) 서라벌식당에서 18명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화기에애한 친교 시간 후 김은아(유교 91)동창이 '유아기에 중요한 태도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심도 깊은 강의 후, 동창들 개개인의 자녀 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유옥자(약학 62)·이문자(가정 65)·강혜란(화학 72)·황송자(초교 79)·조경숙(의학 81) 동창이 참석하였다. 강혜란 동창은 지회 장기자랑 순서에서 전통무용 '살풀이' 공연을 하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총회 종료 후 몇몇 회원들은 밤 비행기 타기 전 여유 시간에 묶어 우즈 국립공원과 소살리토 투어를 하였다.

94 Plus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김영자(영문 61) 동창

10월 18일(금)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영자 동창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였다. 지난 43년간 5만 8,000시간 봉사과 많은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인재 육성과 장학사업 등 3대에 걸친 나눔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영자 동창

김예자(커미부 60입, 23명예졸업) 동창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힘써 온 김예자 동창이 창설한 세계 국제결혼 여성총연합회(World-KIMWA)가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김예자 동창

김홍자(섬예 58입, 07명예졸업) 동창

미국 몽고메리 대학 금속예술 명예교수인 김홍자 동창이 11월 1일(금)부터 30일(토)까지 현대화랑에서 '인연의 향연(The Feast of The Fates)' 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30여 년의 예술적 여정을 집약적으로 선보인 전시였다.



김홍자 동창

김매자(체육 66) 동창

김매자 동창이 춘천문화재단과 강릉아트센터가 공동기획한 공연 <심청>을 11월 23일(토) 춘천문화회관에서 공연하였으며, 2025년 1월 18일(토) 강릉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 동창은 모교 무용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창무예술원 이사장이다.



김매자 동창

이영희(사회 62) 동창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동창이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26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이영희 동창

원문자(동양 66) 동창

모교 명예교수인 원문자 동창이 8월 8일(목)부터 11월 17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여성 작가 22명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는 전시였다.



원문자 동창

조덕이(생명 64) 동창

7월 1일(월)부터 29일(월)까지 훈아트뮤지엄에서 서각 전시회를 가졌다. 조덕이 동창은 우석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정년퇴직 후 꾸준한 서각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 대한민국서각대전에 입선하였다.



조덕이 동창

이정자(조소 66) 동창

9월 1일(일)부터 29일(일)까지 '주 안에서'라는 주제로 할렐루야교회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정자 동창

서용좌(독문 67) 동창

전남대학교 독문과 명예교수인 서용좌 동창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제정한 제43회 조연현문학상에서 장편소설 『날마다 시작』으로 소설 분야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서용좌 동창

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보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하정에 동창은 한국 최초의 현대무용단인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멤버로, 신라대학 무용과 교수와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하정에 동창

이송자(생명 67) 동창

2024년 대한민국 기독 예술대상의 서예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0월 21일(월) CTS기독교 TV 컨벤션 홀에서 열린 시상식을 가졌다. 이송자 동창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한국서예가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송자 동창

강순미(작곡 71) 동창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순미 동창이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1월 22일(금) 서울시청에서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강순미 동창

정승희(무용 67) 동창

정승희 동창이 10월 5일(토)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예술원 70주년 기념 공연 <포스트 휴먼과 예술-춤, 미래의 신화>에서 자신의 안무작 <숫대>를 공연했다.



정승희 동창

김복희(무용 71) 동창

김복희 동창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 선정작 <흙의 울음>을 11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공연했다. <흙의 울음>(2009년 초연)은 김복희 무용단의 대표작이다.



김복희 동창

하정에(무용 67) 동창

10월 25일(금)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2024 문

김화숙(무용 71) 동창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가 제작한 '공간탐색 프로젝트3 서도역'의 작품 <간이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대동창문인회 수필집 출판기념회 및 이화문학상 시상식

11월 12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이대동창문인회(회장 김현숙(영문 69)) 제37집 수필집 출판기념회 및 제27회 이화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제37집 수필집의 제목은 『비람의 푸른 발자국』(개미출판사)으로,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 이혜선 한국여성문학인 이사장 및 한은주 총동창회 부회장이 출판기념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한편 제27회 이화문학상(심사위원장 정연희(국문 58) 소설가)은 허승실(불문 64) 동창의 수필집 『신의 시간표』가 수상하였다.



이대동창문인회 출판기념회 및 이화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동창 회원들

주최하고 예술인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 행사에 지역 우수레퍼토리로 선정되어 10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역에서 공연됐다.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는 현대무용가 김화숙 동창이 원광대학교에서 배출한 제자들과 함께 결성한 단체이다.



김화숙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사)글로리아오페라단 단장 양수화 동창이 창단 33주년 기념 및 푸치니 서거 100주년,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으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을 11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이미일(의직 71) 동창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장 이미일 동창이 6월 21일(금)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남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노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일 동창

이혜숙(수화 71) 동창

한국과학기술센터혁신센터 소장 이혜숙 동창이 제 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19일(화) 서울 중구 페이지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터에서 진행됐다.



박명숙 동창

박명숙(무용 72) 동창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 <바람의 정원>을 9월 8일(일)부터 9일(월)까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렸다. 또한 10월 5일(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대

한민국예술원 70주년 기념 공연 <포스트휴먼과 예술-춤, 미래의 신화>에서 2인무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무대에 올렸다.

전월화(모니카류, 의학 72) 동창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전월화 동창이 경기여고 동창회의 '자랑스러운 경기인'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 19일(토)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한편 12월 14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겸 사옥 오픈 행사를 가졌다.



전월화 동창

김보희(동양 74) 동창

김보희 동창이 10월 9일(수)부터 13일(일)까지 영국 런던 리젠트파크에서 열린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 아트페어와 스코틀랜드 갤러리인 더 모던 인스티튜트(The Modern Institute) 작가로 참여하였으며, 지난 6월 7일(금)부터 9월 17일(화)까지 더 모던 인스티튜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Beyond'를 열었다.



김보희 동창

오경안(법학 75) 동창

5월 8일(수)부터 13일(월)까지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 '상념의 공간전'을 가졌다. 오경안 동창은 단아하게 구성된 상념의 공간에 다양한 색상의 함축된 추상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오경안 동창

이주영(영문 75) 동창

남촌재단 고문 이주영 동창이 남촌장학금과 영어영문학부 100주년 발전기금으로 총 2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기금전달



이주영 동창

식은 11월 13일(수) 모교 본관에서 있었다.

김혜숙(영문 76) 동창

모교 전 총장이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혜숙 동창이 11월 8일(금) 국제철학연맹(FISP)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 출신 철학자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혜숙 동창은 칸트 탄생 300주년을 맞아 『인식의 대전환: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21세기북스)를 펴냈다



김혜숙 동창

신경림(간호 76) 동창

'간호 100년 대상' 수상자로 신경림 동창이 선정되었다. 신경림 동창은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위원장을 지냈고,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경림 동창

김정란(의학 77) 동창

8월 21일(수)부터 27일(화)까지 루벤갤러리에서 '그곳은 언제나 행복'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11월 19일(화)부터 24일(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갤러리해에서 개최되는 '2024 한일국제미술교류전 및 제54회 경주지부 정기회원전'에도 참가했다.



김정란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한국공예가협회(이사장 장영란)는 10월 5일(토)부터 20일(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제51회 한국공예가협회전 '오색의 정원' 전시를 가졌다.



장영란 동창

채미옥(영문 79) 동창

제29회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월)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 채미옥 동창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순애(체육 80) 동창

인스부르크(Innsbruck) 한인회장 이순애 동창이 10월 31일(목) 인스부르크 Haus der Musik에서 열린 제25회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정기연주회를 위해 수고하였다. Richard Hauser 한국 명예 영사, 이경아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차석 대사가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이순애 동창

최신영(의학 80) 동창

최신영내과의원 원장 최신영 동창이 2024년 이웃돕기로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최신영 동창은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최신영 동창

문성애(생미 81) 동창

시카고한인문화회관이 공식 명칭을 개명하며 열린 '시카고한인문화원 로고 공모전'에서 문성애 동창이 당선되었다. 문성애 동창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카야호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최소은(유한나, 독문 81) 동창

재독 시인이며 수필가로 활동하는 최소은 동창이 한국여성시인 시선집 『너를 위한 노래』(에디아 출판사)를 엮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 6인의 작품을 실었다.



최소은 동창

채성숙(동양 82) 동창

채성숙 동창이 9월 4일(수)부터 10월 29일(화)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진부령미술관에서 'Beyond Imagination'라는 주제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채성숙 동창

강애란(서양 83)·김미경(도예 87)·김지혜(도예 91)·손정은(조소 92)·서은애(동양 93) 동창

10월 5일(토)부터 19일(토)까지 서울시 봉은사로 소재 스텔라갤러리에서 'e-wha-9' 전시회를 가졌다. 'e-wha-9'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9명이 함께한 단체전으로 서양화, 동양화, 도예, 조소라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각자가 다루는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이화모(의학 83) 동창

본메디조아의원 원장 이화모 동창이 제17회 가톨릭사회복지대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화모 동창

고영림(불문 84) 동창

한국 유일의 연례 프랑스영화제인 제주프랑스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림 동창이 10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15회 제주프랑스영화제'를 개최했다.



고영림 동창

김연숙(서양 85) 동창

7월 16일(화)부터 10월 6일(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초청전 '하늘과 바람과 별들의 시간'을 가졌다. 천혜의 제주 풍광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회화 작품과 미디어 영상을 선보였다.



김연숙 동창

김영란(서양 85) 동창

5월 30일(목)부터 6월 20일(목)까지 전주 향교길68 미술관에서 '자연(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주제로 기획초대전을 가졌다.



김영란 동창

박수경(서양 86) 동창

11월 5일(화)부터 10일(일)까지 사이아트스페이

스 더플릭스 선정작가전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카이로스를 향하여 (Towards Kairos)'라는 주제로 무한한 시간으로의 갈망을 작품 속에 표현하였다.



박수경 동창

박영숙(경영 86) 동창

비영리 한인 예술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의 이사장인 박영숙 동창은 11월 2일(토) 알재단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인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한 자리였다.



박영숙 동창

김곡미(생미 87) 동창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 중인 김곡미 동창이 9월 11일(수)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육성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곡미 동창

박경혜·박향숙·오운선·김운경·윤혜정·이인숙·이지숙(섬예 87) 동창

9월 9일(월)부터 10월 8일(화)까지 강원도 양양 Mulchie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학과 동기 자수전 '실로 물들다'를 열었다. 빛을 머금은 실크실을 통해 내면의 빛과 에너지를 담았다.



박향숙 동창

김혜련(정의 88) 동창

12월 4일(수) 스크랜튼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서울시 강남구 유니타이트문화재단에서 진행되었다. 김혜련 동창은 2013년부터 아티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김혜련 동창

서은진(조소 88) 동창

‘한지 작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서은진 작가가 ‘중이 위의 정월’이란 타이틀로 한 달 동안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를 성황리에 마치고, 9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두바이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그랜드 아트 페어’에 참여하였다.

윤희정(동양 88) 동창

9월 20일(금)부터 28일(토)까지 한백원미술관에서 ‘하늘 따라’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나무와 숲과 산을 통해 위로를 주고자 하였다.

이정림(물리 88) 동창

9월 2일(월) 이정림 동창이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정림 동창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혈관기기과장, 첨단의료기기과장, 의료기기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림 동창

이인전(동양 89) 동창

9월 20일(금)부터 28일(토)까지 한백원미술관에서 ‘대화의 여정-산길, 물길’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대화의 여정’은 자기성찰이며, 이를 여백을 통해 비움과 채움을 표현하였다.

박효실(서양 90) 동창

10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1전시실에서 ‘마주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개인전을 하였다. 연이어 11월 23일(토)부터 12월 7일(토)까지 갤러리 루하 아키텍츠 컬렉션에서 ‘Out of the Window’라는 제목으로 초대전을 하였다.



박효실 동창

이수정(커미부 90) 동창

‘제4회 신재효문학상’ 당선작에 이수정 동창의 「고인, 돌」이 선정됐다. 이수정 동창의 「고인, 돌」은 주인공

과 어머니가 고향으로 떠나는 여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내용이다.

이주연(동양 90) 동창

10월 11일(금)부터 25일(금)까지 디멘션 갤러리에서 ‘Compound, Structure, Space’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이 동창은 현재 덕성여대 아트앤디자인 대학 동양화 전공교수로 재임 중이다.



이주연 동창



이주연 동창

이화정(약학 90) 동창

모교 약대 학장인 이화정 동창이 약학회에서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18일(월)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화정 동창

정경주(약학 90) 동창

정경주 동창이 11월 12일(화) 제28대 한국 병원 약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경주 동창은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약제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경주 동창

김영옥(교육 91) 동창

시인 김영옥 동창이 제23회 김포문학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2월 7일(토)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영옥 동창

주 현(경영 91) 동창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이사장 주현 동창이 배우자인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김병근 이사장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기금전달식은 10월 11일(금)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에서 열렸다.

허윤희(서양 91) 동창

제25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허윤희 동창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1일(금) 대구미술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허윤희 동창

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홍은경 동창은 한림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내과학회 윤리이사, 대한내분비학회 교과서 개정이사,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덕(정의 92) 동창

〈조선일보〉 선임기자 김윤덕 동창이 제41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0월 16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윤덕 동창

김양선(조소 94)·허유정(조소 95) 동창

11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Same as Ever'라는 주제로 Gallery KOSA에서 2인전을 개최했다.



김양선 동창

정소연(서양 92) 동창

8월 29일(목)부터 10월 27일(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개인전 'The Pink Moment'을 가졌다. 성곡미술관이 2024년 중견작가 초대전으로 개최한 전시이다.



정소연 동창

오수경(서양 94) 동창

11월 1일(금)부터 29일(금)까지 광주 서구 소재 브리티갤러리에서 '필그림(Pilgrim) - 순례자' 개인전을 가졌다. 오수경 동창은 한국미협회원, 채림회원, (사)한국여류작가협회 광주전남지부장, 그룹터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지강(피아노 92) 동창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지강 동창이 데뷔 30주년 피아노 독주회 '희상'을 11월 21일(목)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졌다.



정지강 동창

이상영(섬예 94) 동창

이상영 동창은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2024 국제아트페어에 하랑갤러리 소속 작가로 참여하였다.



이상영 동창

최문선(서양 92) 동창

11월 4일(월)부터 30일(토)까지 Gallery1707에서 아홉 번째 개인전 'Dual Mind_PURPLE RAIN 4'를 가졌다. 최 동창은 감각적인 형태의 무화과를 통해 순수한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다. 전시는 라울아트홀로 옮겨 2025년 2월 28일(금)까지 계속된다.



최문선 동창

김현희(사복 95) 동창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 중인 김현희 동창이 10월 16일(수)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3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이다.



김현희 동창

홍은경(의학 92) 동창

홍은경 동창이 대한내분비학회 제



홍은경 동창

최원선(무용 96) 동창

한국무용가 최원선 동창이 11월 15일(금)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 '제1회 양혜숙 한국상' 시상식에서 작가상을 수상했다. 최 동창은 본(本)댄스컴퍼니 대표 및 예술감독이다.



최원선 동창

정영락(도예 97) 동창

10월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갤러리 인사 1010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 유산청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옹기, 자연을 담다'라는 주제로 옛 문인들의 방과 그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사계절을 옹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정영락 동창

제한정(무용 97)·고현정(무용 99) 동창

제한정·고현정 동창이 2024년 2학기부터 모교 교수에 임용되었다. 제한정 동창은 현대무용 전공, 고현정 동창은 발레 전공 교수이다.



제한정 동창

고현정 동창

임연실(피아노 98) 동창

임연실 동창이 12월 3일(화) 연세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 3번째 무대이다.



임연실 동창

신은미(사회 99) 동창

신은미 동창은 현재 톰슨로이터스 호주법인에서 아시아태평양 테크니컬 서포트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주 역할은 글로벌 무역 규정 준수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800여 개의 글로벌 회사를 서포트 하는 것이다.



신은미 동창

윤미연(도로시 윤, 조소 99) 동창

9월 25일(수)부터 10월 13일(금)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구하우스 미술관에서 'Dancing with the Future' 전을 가졌다.



윤미연 동창

성인제(동양 00) 동창

성인제 동창이 11월 14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 부산의 소비지 갤러리에서 개인전 '달과 해가 함께 뜰 때'를 열었다.



성인제 동창

윤진숙(동양 00) 동창

9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소전미술관에서 '결_맞추어가기'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윤진숙 동창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윤진숙 동창

이문정(동양 00)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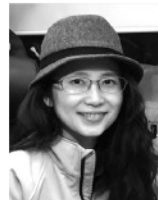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이문정 동창이 9월 5일(목)부터 26일(목)까지 토탈미술관에서 '동시대 미술의 행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또한 『진행형의 세계: 한국 동시대 미술을 그리다』 저자인 이문정 동창은 10월 16일(수)에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도서관에서 북토크를 진행하였다.



이문정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11월 8일(금)부터 30일(토)까지 '달'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순임 동창

권현진(서양 03) 동창

9월 24일(화)부터 10월 26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표 갤러리에서 개인전 'Visual Illusion'을 가졌다.



권현진 동창

박주희(체육 03) 동창

세계수영연맹 집행위원 박주희 동창이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ISF)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박주희

동창은 '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 '한국인 최초 IOC 산하 국제올림픽아카데미 과학위원회 위원' 등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서영민(섬예 06) 동창

서영민 동창은 11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아트 페어에 참가하였다.

안은선(섬예 07) 동창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선정되어 9월 5일(목)부터 21일(토)까지 러쉬 오픈스테이지에서 전시를 했다. 또한 9월 7일(토)부터 28일(토)까지 오목한미술관에서 열린 2024 한국한지문화산업발전연합회 정기전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였다.

안정신(의학 12) 동창

9월 21일(토)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2024년 대한중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안정신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지현(조소 15) 동창

11월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사유 정원'이라는 주제로 Gallery Vinci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양지윤(윤지양, 독문 16) 동창

양지윤 동창이 민음사가 주관하는 제43회 김수영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양지윤 동창은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부문에 당



박주희 동창



서영민 동창



안은선 동창



안정신 동창



이지현 동창



양지윤 동창

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박찬별(생미 18) 동창

10월 30일(수)부터 11월 23일(토)까지 '상호작용이 가득한 방(A Room Full of Interaction)'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크래프트 온더힐'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상호작용이 가득한 방'은 4차원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3차원으로 기록한 작업이다.



박찬별 동창

김진선(조소 19) 동창

10월 25일(금)부터 11월 3일(일)까지 'Touch is Beginning'이라는 주제로 Goobne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진선 동창

은희경(생미 19) 동창

10월 4일(금)부터 30일(수)까지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나 있는'이라는 주제로 서울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공간의 유동성을 이야기하였다.



은희경 동창

정다정(조소 19) 동창

9월 28일(토)부터 10월 13일(일)까지 '장면(Scene)'이라는 주제로 레인보우 큐브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정다정 동창

최아름(의학 22) 동창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아름 동창의 연구팀(공동연구자 소화기내과 정성애(의학 91) 교수, 의과학연구소 안소현(의학 99) 교수)이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대회(KSGE Days 2024)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24.01.01~24.12.24(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김노미(88) 1,000,000	최경희(80) 1,000,000	함연주(94) 3,000,000	수학교육과	정준순(72) 1,000,000
국어국문학과	이성자(88) 1,000,000	황복기(83) 1,000,000	섬유예술과	신경희(77) 1,000,000	박병희(84) 1,000,000
강정혜(70) 2,000,000	유성연(94) 3,000,000	박상희(94) 3,000,000	오현아(91) 1,000,000		황미경(86) 1,000,000
임덕기(72) 1,0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생명과학과	이상영(94) 3,000,000	법대·법전문	이경희(88) 1,000,000
송동수(74) 5,000,000	이선주(94) 3,000,000	박미향(89) 1,000,000	생활미술과	법학과	최경숙(92) 1,000,000
피현경(94) 3,000,000	사회학과	황유경(89) 1,000,000	김수진(94) 3,000,000	안경희(86) 1,000,000	김경희(94) 3,000,000
중어중문학과	양숙경(74) 5,000,000	이지연(94) 3,000,000	장식미술과	윤석희(87) 1,000,000	제약학과
김정환(90) 1,000,000	신혜령(75) 1,000,000		이지현(94) 3,000,000	박성혜(88) 1,000,000	장우현(74) 5,000,000
송진영(90) 1,000,000	고혜경(77) 1,000,000	공과대학	도예과	노정연(90) 1,000,000	유혜종(94) 3,000,000
신지영(90) 1,000,000	문병재(77) 1,000,000	컴퓨터공학과	한향림(79) 1,000,000	조현지(91) 1,000,000	생활환경대학
김예경(94) 3,000,000	박순원(77) 1,000,000	김정아(85) 1,000,000	이현정(94) 3,000,000	김구슬(93) 1,000,000	가정관리학과
영어영문학과	서동선(77) 1,000,000	장선영(89) 2,000,000		이영희(94) 3,000,000	김상희(81) 1,000,000
성혜옥(70) 1,000,000	김은미(81) 1,000,000	임지영(94) 3,000,000	체육대학		이주연(94) 3,000,000
이경숙(70) 1,000,000	이재완(84) 1,000,000		체육학과	경영대학	의류직물학과
장 선(72) 1,000,000	사회복지학과	음악대학	신윤아(94) 3,000,000	경영학과	금기숙(74) 5,000,000
김옥희(74) 5,000,000	한혜원(74) 5,000,000	기악과	강승애(95) 1,000,000	정은실(88) 1,000,000	이은정(94) 3,000,000
조선영(74) 1,000,000	이희수(77) 1,000,000	피아노과	무용과	황진선(90) 1,000,000	식품영양학과
김혜숙(76) 1,000,000	조병희(77) 1,000,000	이유경(74) 5,000,000	조미송(81) 1,000,000	윤귀영(94) 3,000,000	김희설(74) 5,000,000
이정숙(77) 1,000,000	조상미(94) 4,000,000	김현경(94) 3,000,000	전우오(84) 1,000,000	국제사무학과	이은미(83) 1,000,000
박영주(78) 1,000,000	심리학과	관현악과	김예림(94) 3,000,000	고현주(94) 1,000,000	조미숙(83) 1,000,000
정경숙(79) 1,000,000	박광규(76) 1,000,000	이아람(94) 3,000,000		한영아(94) 3,000,000	정희정(94) 3,000,000
서연희(94) 3,000,000	박혜홍(78) 1,000,000	성악과	사범대학	의과대학	융합보건학과
불어불문학과	라현경(91) 1,000,000	이연화(74) 5,000,000	교육학과	의학과	김 명(74) 5,000,000
배운경(87) 1,000,000	자연과학대학	박지영(94) 3,000,000	김은산(59) 1,000,000	금봉숙(74) 5,000,000	이정화(94) 3,000,000
최내경(89) 1,000,000	수학과	중교음악과	윤순희(65) 1,000,000	오혜숙(78) 1,000,000	
김엘라자베스(94) 3,000,000	김진미(83) 1,000,000	최은희(81) 2,000,000	정은영(89) 1,000,000	성시열(81) 1,000,000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김경령(84) 1,000,000	김축복(94) 3,000,000	유아교육과	임선영(82) 1,000,000	이화정(92) 1,000,000
김영미(72) 1,000,000	김미성(88) 1,000,000	한국음악과	김영주(71) 1,000,000	김태경(84) 1,000,000	
유동신(74) 5,000,000	김현선(88) 1,000,000	양재희(80) 1,000,000	신화식(74) 5,000,000	안혜선(84) 1,000,000	교육대학원
이정화(74) 2,000,000	이홍숙(88) 1,000,000	곽은아(85) 1,000,000	최일선(92) 1,000,000	피상순(84) 1,000,000	양수화(74) 1,000,000
유정은(94) 3,000,000	진양혜(92) 1,000,000	채수정(94) 3,000,000	유아교육과 외출 3,500,000	김성희(87) 1,000,000	
기독교학과	이상희(94) 3,000,000	조형예술대학	초등교육과	조지희(88) 1,000,000	디자인대학원
이현정(94) 3,000,000	통계학과	동양학과	교육공학과	박혜영(89) 1,000,000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2,000,000
사학과	박선규(94) 3,000,000	김귀주(74) 5,000,000	이순정(74) 5,000,000	임석아(91) 2,000,000	
임계순(67) 1,000,000	물리학과	구미경(94) 3,000,000	권미경(87) 1,000,000	윤하나(94) 3,000,000	정책과학대학원
임인선(72) 1,000,000	남상택(74) 1,000,000	서양학과	이현영(94) 3,000,000	간호대학	전혜성(08) 2,000,000
유영희(74) 5,000,000	정숙희(77) 2,000,000	백다임(86) 1,000,000	특수교육과	간호학과	김순옥(19) 1,000,000
주혜련(77) 1,000,000	이희숙(86) 1,000,000	강수연(94) 3,000,000	한은경(79) 1,000,000	최미선(91) 2,000,000	신학대학원
최지영(89) 1,000,000	박종애(87) 1,000,000	정승희(98) 2,000,000	송명숙(94) 3,000,000	박현태(94) 3,000,000	송미경(18) 1,000,000
정혜중(91) 1,000,000	최은영(87) 1,000,000	조소과	영어교육과	약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김효정(94) 3,000,000	황지선(74) 5,000,000	윤금진(80) 1,000,000	약학과	
정치외교학과	화학과	강신애(78) 1,000,000	장연희(87) 1,000,000	김순영(62) 1,000,000	
허정은(94) 3,000,000	배경화(74) 5,000,000	강승주(87) 1,000,000	최은경(94) 3,000,000		
문헌정보학과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01~2024.12.24(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윤수영(65) 300,000	최수정(70) 300,000	최경희(77) 300,000	박수현(08) 500,000	김형숙(58) 300,000
국어국문학과	신효재(66) 300,000	김용희(71) 300,000	하선아(85) 300,000	강운희(20) 500,000	전은경(59) 300,000
김성자(61) 300,000	박영숙(67) 300,000	박희규(71) 300,000	이현주(88) 500,000	윤이지(23) 500,000	서진욱(61) 300,000
강진환(62) 351,624	오원자(68) 300,000	임덕기(72) 300,000	이승선(91) 300,000	영어영문학과	김화숙(62) 300,000
박미혜(64) 300,000	임완숙(68) 300,000	이수자(73) 300,000	심현정(92) 500,000	김세영(51) 1,000,000	이행자(62) 300,000
송홍자(65) 300,000	서경자(69) 300,000	최석진(73) 300,000	박유진(22) 500,000	김순자(55) 300,000	정소영(62) 300,000
안정환(65) 300,000	송효연(69) 300,000	홍석진(73) 300,000	중어중문학과	강상봉(56) 500,000	김예란(63) 500,000
유정자(65) 300,000	유원화(69) 300,000		금지연(92) 500,000	이인주(56) 300,000	문영혜(63) 300,000

박인자(63) 300,000
 유영애(63) 300,000
 양장자(64) 300,000
 박명자(67) 300,000
 엄은옥(67) 300,000
 오경임(67) 300,000
 한수미(67) 300,000
 김영숙(69) 300,000
 송재영(69) 300,000
 정성희(69) 300,000
 김순희(70) 300,000
 김영옥(70) 300,000
 박지화(70) 300,000
 성혜옥(70) 300,000
 안연수(70) 300,000
 이경숙(70) 300,000
 최선열(70) 300,000
 홍선희(70) 300,000
 방희정(72) 300,000
 신혜수(72) 300,000
 이승선(72) 300,000
 장 선(72) 300,000
 박순연(74) 300,000
 조선영(74) 300,000
 권혜옥(75) 300,000
 김희자(76) 300,000
 유의순(76) 300,000
 이정숙(77) 300,000
 김남민(78) 300,000
 김춘희(78) 300,000
 이명실(78) 300,000
 홍성미(78) 300,000
 문영희(79) 300,000
 안미영(79) 300,000
 이해남(79) 300,000
 김종유(80) 300,000
 김동숙(81) 300,000
 김승희(81) 300,000
 신인화(81) 300,000
 임순희(82) 300,000
 김주희(92) 500,000
 명선영(92) 500,000
 김동연(93) 500,000
 권은희(94) 500,000
 이승은(94) 500,000
 박미경(98) 500,000
 박지희(07) 500,000
 송세일(09) 500,000
 김민경(16) 500,000
 방하영(24) 500,000

불어불문학과

허영자(62) 3,500,000
 남혜경(63) 300,000
 조귀연(65) 300,000
 김영희(66) 300,000
 임채문(67) 300,000
 박순자(68) 300,000
 안현주(68) 300,000
 이원옥(68) 300,000
 신선혜(69) 300,000
 임순영(70) 300,000
 민혜경(71) 300,000
 강미영(72) 300,000
 오인순(72) 300,000

이영숙(72) 300,000
 장혜경(73) 300,000
 신덕영(75) 300,000
 김영혜(77) 300,000
 배혜화(77) 300,000
 조정순(77) 300,000
 김지윤(79) 300,000
 박미리(79) 300,000
 원종미(79) 300,000
 이규숙(81) 300,000
 어미화(82) 300,000
 이정은(83) 500,000
 조은실(85) 300,000
 김세정(22) 500,000

독어독문학과

민용자(67) 900,000
 오영란(67) 300,000
 이종희(67) 300,000
 최옥주(67) 300,000
 이숙경(68) 300,000
 고광현(69) 300,000
 이금숙(69) 300,000
 김미희(71) 300,000
 김장영(71) 300,000
 추혜경(71) 300,000
 김용애(72) 300,000
 차성은(72) 300,000
 유동신(74) 300,000
 이정화(74) 300,000
 임병희(74) 300,000
 이은주(82) 300,000
 최상민(다경)(03) 500,000

기독교학과

문신자(64) 295,000
 김 형(65) 300,000
 김연숙(69) 300,000
 이정윤(74) 300,000
 김미순(75) 300,000
 송지애(86) 300,000
 최수현(92) 500,000
 윤애란(22) 500,000
 박주은(23) 500,00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한연숙(59) 300,000
 홍영희(67) 300,000
 구혜정(71) 300,000
 이문숙(79) 300,000
 김미령(80) 300,000
 정민재(81) 300,000
 문하옥(85) 300,000
 임수영(91) 500,000
 김유진(22) 500,000

행정학과

임주희(90) 500,000
 차운정(94) 500,000

문헌정보학과

홍승진(65) 300,000
 박영숙(70) 300,000
 지금련(72) 300,000
 윤소영(73) 300,000
 노경석(75) 300,000
 고광옥(81) 300,000
 권영금(94) 500,000
 이승하(16) 5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장명수(64) 300,000
 김영미(72) 300,000
 변지숙(65) 300,000
 조애진(66) 300,000
 차경애(66) 300,000
 চে명자(66) 300,000
 한영자(66) 300,000
 이경순(67) 300,000
 한명미(67) 300,000
 정완숙(74) 300,000
 남성희(78) 300,000
 홍인화(80) 300,000

사회학과

김덕신(66) 300,000
 유혜향(66) 300,000
 이수인(67) 300,000
 강여금(69) 300,000
 민순기(70) 300,000
 김난숙(74) 300,000
 김자혜(74) 300,000
 양승정(74) 300,000
 문명재(77) 300,000
 박순원(77) 300,000
 서동선(77) 300,000
 김은미(81) 300,000
 김현주(81) 300,000
 최신애(81) 300,000
 김정희(82) 300,000
 이정화(85) 300,000
 김우진(08) 500,000
 김현주 300,000

사회복지학과

오명자(65) 300,000
 최재명(66) 300,000
 김일숙(67) 300,000
 김휘성(67) 300,000
 문선화(68) 600,000
 한인영(72) 600,000
 이화수(77) 300,000
 조명희(77) 300,000

박영애(79) 300,000
 김정진(80) 300,000
 김선영(92) 500,000
 정유선(02) 500,000

심리학과

이은실(60) 1,300,000
 오봉림(61) 300,000
 임혜영(64) 300,000
 차정자(65) 300,000
 홍기명(68) 300,000
 남영자(71) 300,000
 신현숙(71) 300,000
 송혜숙(73) 300,000
 한보란(75) 300,000
 김정애(76) 300,000
 박망규(76) 300,000
 강순원(80) 300,000
 한성영(82) 300,000
 한상은(84) 300,000
 이현승(93) 500,000
 장서희(01) 500,000
 김선영(09) 500,000

경제학과

박민정(02) 500,000
 박지현(18) 500,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민경자(63) 300,000
 최길남(70) 300,000
 강점기(79) 300,000
 노진숙(79) 300,000
 조선영(80) 300,000
 조은희(81) 300,000
 김경명(84) 300,000
 김민경(85) 500,000
 함지영(91) 500,000

통계학과

유시내(96) 500,000
 이해은(00) 500,000
 유선희(04) 500,000

물리학과

모예정(62) 300,000
 안용학(70) 300,000
 김성희(74) 300,000
 김순옥(74) 300,000
 남상택(74) 300,000
 이영애(74) 300,000
 이재화(75) 300,000
 심금희(86) 300,000
 이경희(88) 500,000
 박수산(91) 500,000
 이수영(93) 500,000
 안지영(95) 500,000
 서정은(08) 500,000
 이소윤(10) 500,000

화학과

강영옥(60) 300,000
 김순신(69) 300,000
 허인순(69) 300,000
 김정수(70) 300,000
 박연수(70) 300,000
 백기숙(71) 300,000
 정훈희(71) 300,000

심명숙(72) 300,000
 심송영(73) 300,000
 이종옥(73) 300,000
 배재화(74) 300,000
 최 인(74) 300,000
 김정원(76) 300,000
 성진희(85) 300,000
 석지수(12) 500,000
 주애영(15) 500,000

생명과학과

이정애(59) 300,000
 류 우(60) 300,000
 정은자(61) 300,000
 서경자(63) 300,000
 김경애(65) 300,000
 이해숙(67) 300,000
 한진순(70) 300,000
 조애현(74) 300,000
 함천경(77) 300,000
 조가현(09) 500,00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조호경(87) 500,000

전자공학과

김현주(16) 500,000
 여현영(23) 500,000

환경공학과

이효수(97) 500,000
 전유진(16) 500,000
 손채원(21) 500,000

건축학과

심미혜(09) 500,000

음악대학

기악과
 윤연경(49) 300,000
 백형자(61) 300,000
 장혜원(62) 300,000
 최수현(63) 300,000
 이해자(64) 300,000
 정창자(64) 300,000
 윤미재(65) 300,000
 김기순(66) 300,000
 안미자(66) 300,000
 조정진(67) 300,000
 홍영주(68) 300,000
 나효선(70) 300,000
 이재화(75) 300,000

피아노과

정소영(62) 300,000
 손동숙(72) 300,000
 양민순(74) 300,000
 권해령(76) 300,000
 우숙영(87) 500,000
 이해영(87) 500,000
 남영화(91) 500,000
 백진영(91) 500,000
 이선영(91) 500,000
 이지영(91) 500,000
 박지영(92) 500,000
 채성내(92) 500,000
 송혜영(96) 500,000

관현악과

유인숙(75) 300,000

김형진(79) 300,000
 민명수(79) 500,000
 이미애(79) 300,000
 이혜정(79) 300,000
 박영란(80) 300,000
 이정자(81) 300,000
 김화연(82) 300,000
 여성애(82) 300,000
 이선희(82) 300,000
 장미숙(82) 300,000
 조혜숙(82) 300,000
 함임주(82) 300,000
 강인숙(83) 300,000
 강상리(83) 300,000
 안소영(83) 500,000
 이영희(83) 300,000
 지선옥(83) 300,000
 강찬향(84) 300,000
 김부순(84) 300,000
 박 경(84) 300,000
 박병희(84) 300,000
 박수영(84) 300,000
 김영은(85) 300,000
 김정은(86) 500,000
 김은미(86) 500,000
 김현주(86) 500,000
 최혜숙(86) 300,000

황미경(86) 300,000
 김승희(88) 500,000
 최영옥(88) 500,000
 이윤정(92) 500,000
 서성연(95) 500,000
 김희진(02) 500,000
 유별내(02) 500,000
 권한비(21) 500,000
 우혜인(22) 500,000
제약학과
 송수남(72) 300,000
 김미자(74) 300,000
 서성애(75) 300,000
 윤영숙(75) 300,000
 이숙희(75) 300,000
 이영숙(76) 300,000
 공서형(79) 300,000
 김선주(79) 300,000
 서영순(80) 300,000
 한병희(83) 300,000
 김은경(85) 300,000
 배은숙(85) 300,000
 유선희(85) 500,000
 이종민(85) 300,000
 이정경(88) 500,000
 송경령(89) 500,000
 안은선(89) 500,000

문미란(93) 500,000
 진수경(94) 500,000
 서은영(99) 500,000
 최지영(08) 500,000
생활환경대학
가정학과
 경순옥(59) 300,000
 송태좌(60) 300,000
 박정희(62) 300,000
 박창순(62) 300,000
 박혜경(63) 300,000
 이증훈(64) 300,000
 정화자(64) 300,000
 김국자(66) 300,000
 이갑희(66) 500,000
 이숙현(67) 300,000
 최민자(67) 300,000
 김대순(68) 300,000
 김성림(68) 300,000
 문옥조(68) 300,000
 배계현(68) 300,000
 최순자(68) 300,000
가정관리학과
 이정남(70) 300,000
 박인숙(71) 300,000
 이봉진(72) 300,000

김현숙(73) 300,000
 한정희(74) 300,000
 김진원(75) 300,000
 지영서(80) 300,000
 박옥임(86) 300,000
 이향진(87) 300,000
 임주희(93) 300,000
의류직물학과
 이병희(70) 300,000
 정혜순(71) 300,000
 우미형(77) 300,000
 변기혜(81) 300,000
 차영란(82) 300,000
식품영양학과
 장영애(64) 300,000
 이선옥(69) 300,000
 편희숙(69) 300,000
 김정연(70) 300,000
 김태연(70) 300,000
 우정애(70) 300,000
 이호자(70) 300,000
 박진자(71) 300,000
 김남주(72) 300,000
 김금희(73) 300,000
 강종은(74) 300,000
 김희심(74) 300,000
 김광옥(75) 300,000

이명복(75) 300,000
 황은주(75) 349,534
 최진자(80) 300,000
 전보신(81) 300,000
 조미숙(81) 300,000
 조미숙(83) 300,000
융합보건학과
 장점숙(69) 300,000
 이수인(70) 300,000
 김옥례(71) 300,000
 함추희(72) 300,000
 김동희(74) 300,000
 이선숙(74) 300,000
 김숙자(82) 300,000
 유형신(90) 500,000
국제학부
국제학과
 최수안(06) 500,000
대학원
 이정자(74) 300,000
 박선애(01) 500,000
교육대학원
 양수화(74) 300,000

디자인대학원
 조기련(85) 300,000
사회복지대학원
 유지선(18) 500,000
정책과학대학원
 전혜성(08) 500,000
신학대학원
 최영신(12) 300,000
 천미영(14) 500,000
학과-연도 미상
 박인숙 600,000
 윤혜원 600,000
 이경미 300,000
 이수자 300,000
 이영경 300,000
 이혜재 300,000
 장수진 500,000
 최유미 300,000
 불 명 5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불 명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4.01~2024.12(과-졸업 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임인진(58)
 김중자(60)
 신도자(60)
 권은영(62)
 정순자(64입)
 전병숙(64)
 정준선(66)
 정순자(67)
 오원자(68)
 전신애(75)
 한순미(75)
 백영자(76)
 박민영(86)
 압혜민(23)
중어중문학과
 김영미(89)
 박유경(02)
 석지민(24)
영어영문학과
 류수인(50)
 백형진(55)
 김경숙(58)
 고학신(59)
 김옥선(61)
 김정매(63)
 박봉숙(63)
 박성희(63)
 임윤성(63)
 유명자(63)

김춘미(65)
 이영숙(68)
 이윤희(68)
 김중자(69)
 서경훈(70)
 오경심(70)
 이종희(70)
 김수연(71)
 김혜정(72)
 백혜련(75)
 김미량(77)
 유 은(79)
 채미옥(79)
 이승희(80)
 최정숙(81)
 고혜선(82)
 박경애(83)
 박은주(94)
 권남규(64)
 김명미(64)
 윤용범(64)
 조행자(64)
 성명숙(66)
 엄선경(67)
 이한순(67)
 오진옥(70)
 최미자(70)
 정광자(73)
 채 림(86)
 김소연(16)

송하연(16)
독어독문학과
 김정미(71)
 김정미(92)
 최희진(94)
기독교학과
 김나순(63)
 김영화(65)
 최길복(65)
 이정자(66)
 장수자(66)
 윤경애(70)
 한은주(87)
 김정연(12)
철학과
 강승희(90)
 소수빈(21)
 최소은(24)
사학과
 정민자(61)
 조성신(61)
 서정임(68)
 최유리(84)
 한은미(87)
 조주은(9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윤혜자(61입)
 김영숙(70)
 김영희(70)

서엄미(70)
 서정희(70)
 이양준(70)
 이연표(70)
 조백련(70)
 조복선(70)
 하정희(70)
 신경희(71)
 서미영(72)
 서미영(72)
 손인숙(72)
 양혜련(72)
 구재숙(80)
 김민화(94)
 서석영(94)
 김인애(12)
문헌정보학과
 유애저(65)
 진성자(65)
 최덕영(74)
 조혜진(91)
 김지현(22)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최광순(64)
 조정자(67)
 성인숙(70)
 김정희(72)
 김인자(73)
 안경화(94)
 송지은(01)
 전선혜(10)

사회학과
 최용소(65)
 한춘희(68)
 유혜숙(69)
 이유진(24)
사회복지학과
 오순희(60)
 이영우(62)
 최태순(62)
 손정자(64)
 최수자(67)
 고순자(69)
 장성순(72)
 심세화(96)
심리학과
 김태련(60)
 김순옥(61)
 장신희(69)
 이동길(89)
 조혜림(23)
경제학과
 문종순(94)
 이은주(97)
 김아나(05)
 양현정(09)
 염다연(24)
소비자학과
 조소영(20)
 차지윤(24)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윤연상(62)
 이숙자(73)
 박복자(76)
 류경라(81)
통계학과
 김수진(05)
물리학과
 김경자(68)
 김도희(74)
 이미경(86)
 한미경(88)
 류승희(06)
 백소정(23)
화학학과
 김정남(60)
 박영현(60)
 양영자(65)
 양하자(65)
 김형경(70)
 이인희(70)
 최희성(74)
 박세주(75)
 하경란(23)
생명과학과
 최영희(60)
 박혜순(72)
 박정미(91)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이영옥(92)
 하홍주(24)
 한다현(24)
 김민지(24)
환경공학과
 장운진(24)
 양은빈(24)
 이주애(24)
음악대학
기악과
 박희선(60)
피아노과
 김태영(88)
 문주원(88)
 불 명(08)
 원현정(08)
 박소영(23)
관현악과
 이혜원(81)
 김자영(03)
성악과
 왕이자(67)
 전명순(74)
 조경희(80)
 석혜원(94)
 정이정(95)
작곡과
 강수미(71)

김시애(75)
 조양선(85)
중고음악과
 홍순원(72)
 오혜자(74)
한국음악과
 강혜나(06)
 박민지(14)
 이유경(24)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박유정(86)
 이승은(89)
서양화과
 양영욱(63)
 노정란(71)
 박형주(91)
 정소연(92)
 강수연(94)
 이정선(12)
조소과
 박덕선(65)
 김경숙(71)
 황지선(74)
섬유예술과
 오복환(66)
 오삼선(68)
 이현조(23)
 한애령(81)
 전영선(88)

김미진(93)	이경아(92)	이승주(73)	최혜경(60)	백영희(75)	학과·연도 미상	황미숙(무용 84)	685,100원
김연재(94)	장영미(92)	박향옥(74)	홍준자(60)	민혜경(77)	박주현	박영자(국문 85)	세인트루이스
이현조(23)	교육공학과	조근배(77)	황영숙(60)	김허경(78)	박지선	최희윤(불문 85)	466,333원
생활미술과	이숙애(72)	진선희(94)	고경희(61)	김영미(79)	안정신	김영란(서양 85)	정홍순(서양 61)
이민정(67)	고연주(91)	변영리(04)	고화영(61)	조은진(94)	이동원	정순임(서양 85)	최경선(영문 61)
노경혜(69)	강현정(94)		김옥녀(61)		이영자	정향숙(서북 86)	김평자(영문 63)
김미자(70)	특수교육과	경명대학	배형진(61)	생활환경대학	전윤식	유희연(영교 86)	이수자(가정 63)
박혜신(71)	김은경(87)	경영학과	은영기(61)	가정학과		김광숙(의직 86)	최길자(화학 65)
이주형(80)	성미영(94)	경영학과	이광구(61)	윤영자(56입)		김경주(행정 88)	정신주(가정 68)
장식미술과	영어교육과	박정희(74)	이종희(61)	손경희(58)	기타 이름 미상	김희진(특교 89)	이애희(간호 69)
최애리(86)	김영숙(69)	김재신(89)	정예경(61)	김선영(59)	(9명)	김은영(사학 93)	선재숙(의학 72)
신영선(88)	최종숙(72)	박숙영(00)	정은자(61)	김혜자(60)	국내 지회	김수진(법학 94)	남진우(간호 73)
도예과	하현숙(72)	고지현(23)	반도량(62)	이공희(60)	순천	강진아(중문 95)	양혜자(교육 74)
남연숙(86)	강순구(75)	배정현(24)	김국자(63)	한영숙(60)	630,000원	권주연(피아노 98)	최혜영(생미 86)
	윤영진(76)	신지영(24)	송정구(63)	양여순(61)	조정자(국문 63)	이윤정(피아노 99)	이명아(피아노 91)
체육대학	김희경(77)	국제사무학과	신경자(63)	김숙희(62)	강초혜(가정 63)	한소연(의직 02)	시애틀
체육학과	박영란(80)	임은식(81)	안복자(63)	박영혜(63)	김경인(동양 74)		411,471원
김숙자(63)	신경희(86)	권세정(09)	전휘신(63)	김룡자(64)	홍선란(교육 74)		싱가포르
김혜자(66)	이상연(87)	오지은(24)	정창섭(63)	예정혜(64)	최정숙(영교 74)		1,500,000원
최춘자(66)	최수영(87)	외과대학	하명자(63)	이영애(64)	유종희(사학 75)	해외 지회	
홍양자(67)	김은정(93)	의학과	홍명자(63)	나순구(65)	고명진(영문 76)	남가주	1,371,570원
이정자(68)	사회과교육과	의학과	황분희(63)	박부자(65)	박금희(물리 76)	네덜란드	
김은희(72)	김경옥(57)	우복희(63)	김경자(64)	박정자(65)	최영자(사회 77)	1,380,000원	
이미나(81)	박정복(57)	배민자(66)	김기방(64)	오매성(66)	김병석(작곡 79)	뉴욕	
김유련(97)	박희선(57)	최현숙(70)	김승윤(64)	조규화(66)	황경숙(체육 79)	2023년분 1,315,230원	685,785원
이은경(21)	양인숙(66)	최경교(71)	김애란(64)	박순자(67)	나연희(경영 79)	2024년분 1,329,500원	이탈리아
무용과	이자행(66)	유경화(74)	나진미(64)	배계현(68)	서혜석(영문 81)	독일·오스트리아	215,000원
박상희(67)	최영자(66)	정운희(74)	백정자(64)	가정관리학과	유숙영(법학85)	1,000,000원	일리노이
진재은(70)	백진수(68)	최금자(74)	안선자(64)	권광자(71)	윤지연(간호 85)	고선영(불어교육 86)	685,785원
손경순(77)	성봉기(68)	이경자(75)	오성자(64)	노재열(74)	최정순(커미부 87)	390,000원	일본
전예진(23)	윤여숙(69)	이정림(76)	정태연(64)	서태선(75)	최문희(송자)(65)	1,418,000원	540,000원
	박영주(70)	최금숙(79)	김명자(66)	이중은(94)	의류직물학과	홍기은(교공 88)	최영숙(체육 65입)
사범대학	이광숙(72)	간호대학	김수옥(67)	의류직물학과	김수진(경영 91)	김수진(경영 91)	곽소춘(사학 65)
교육학과	박지선(74)	간호학과	김신자(67)	김유결(70)	이유진(섬예 95)	최인자(과교 89)	\$200
김애자(56)	김정환(76)	오나미혜(64)	김지영(67)	이희원(74)	전주	\$100	
권유봉(58)	임세아(24)	권명자(71)	오정혜(67)	주성희(74)	1,320,000원		멜버른
정재숙(58)	과학교육과	김택숙(71)	이평숙(67)	지수연(92)	이순례(수학 59)	195,027원	195,027원
김은산(59)	이순자(67)	박미주(73)	정순혜(67)	식품영양학과	김영원(기악 61)	2023년분 240,000원	송미연(커미부 86)
권혜숙(61)	한옥희(67)	조문옥(73)	최원자(68)	장선재(69)	국혜원(사학 62)	박복길(교육 60)	김덕희(도예 92)
김애순(61)	한태화(68)	최혜은(98)	강인자(69)	이영숙(70)	조택이(생명 64)	박정자(화학 62)	나정운(동양 92)
임영희(61)	김인원(75)	약학대학	백숙희(69)	전정숙(71)	이주자(사교 67)	전숙자(사회과교육 65)	구은경(서양 93)
백영자(63)	이정옥(63)	약학과	신경희(69)	김현구(73)	장 숙(교공 69)	성형숙(피아노 74)	이복미(유교 93)
오금희(65)	조경희(86)	전예신(51)	오경순(69)	이은정(94)	안명옥(심리 70)	이재화(무용 76)	김운철(평교원 96)
윤순희(65)	안양희(89)	문형자(54)	최혜영(69)	융합보건학과	박숙희(교공 70)	김명원(수학 92)	김은영(커미부 01)
박정수(68)	박균하(94)	김정순(57)	노승봉(70)	이주순(73)	이전숙(의직 70)	박시영(영문 96)	김 일(한음 02)
우소화(68)	나다연(23)	김필한(57)	정현숙(70)	조남옥(74)	박경혜(영교 71)	표연수(통역대학원 07)	고나리(커미부 05)
황순자(69)	유가영(24)	우종순(57)	박숙현(71)	한도숙(75)	기영석(국제사무 73)	2024년분 390,000원	김보경(디자인 08)
김임순(70)	조혜원(24)	홍정옥(57)	이태윤(71)	오명진(78)	이현실(심리 73)	박복길(교육 60)	문춘자(알프스 09)
양경옥(71)	수학교육과	정찬래(58)	김선희(72)	임찬희(78)	손숙희(작곡 73)	박정자(화학 62)	자카르타
박국자(72)	문봉선(76)	김필한(57)	손순주(72)	대학원	심창교(물리 75)	전숙자(사회과교육 65)	267,000원
박상경(02)	법대·법전원	홍정옥(57)	임순옥(72)	강소진(01)	오경안(법학 75)	이수형(커미부 67)	클리블랜드
유아교육과	법학과	정찬래(58)	신영숙(77)	김호정(13)	정혜숙(영문 77)	민경희(경영 68)	411,471원
유근희(61)	이홍배(61)	윤혜숙(59)	박민희(73)	이지람(18)	유수옥(특교 77)	임명애(국문 73)	토론토
김영희(68)	민명자(65)	최안자(59)	김현미(78)	은영주(23)	유순금(법학 77)	성형숙(피아노 74)	599,584원
유청옥(88)	유희숙(65)	고순환(60)	최경석(81)	교육대학원	오경진(영문 78)	고정희(사회 75)	411,471원
초등교육과	이영자(65)	민경남(60)	김용재(82)	이유희(24)	이은경(화학 79)	이재화(무용 76)	백희준(수학 84)
김광자(65)	홍경자(65)	유선경(60)	이종민(85)	임희정(24)	김경주(무용 80)	김명원(수학 92)	홍콩
정미자(65)	양정자(66)	윤계임(60)	장은선(85)	신학대학원	이정숙(유교 81)	김명원(수학 92)	1,069,200원
이인숙(70)	안정희(67)	윤계임(60)	송희순(85)	박경천(04)	강명옥(영문 82)	박시영(영문 96)	
이지수(71)	윤혜숙(70)	이청환(60)	송희순(86)	장계영(20)	성현수(영문 82)	표연수(통역대학원 07)	
이현숙(71)	강영은(72)	장현숙(60)	서성옥(88)	제약학과	이옥현(피아노 82)	보스턴	685,785원
조을순(75)	이중분(72)	최정희(60)	최영숙(71)	최영숙(71)	문아경(약학 82)	북가주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SINCE 1999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5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퇴직연금은 탄탄한 신한은행!

"안정적인
퇴직연금은 어디?"

"탄탄한
신한은행!"



[주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연금 자동이체 따라 매월보통 대장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해 이 다른 보장상품과는 별도로 연금 5%만 원천징수(공과금)는 금융상품 판매비/보수비용 포함 부과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이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기금 1회 매입 시기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해당상품에 대해 설명할 만할 경우가 있습니다. * 1회 매입 시 1만원 전 종료해지(해지) 연금 이의 영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현금 및 수익에 대해 1%의 세금(국세 0.5%)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의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회 매입 시 수익률은 무위험 0.27% ~ 연 0.45% / DC의 수수료는 무위험 0.4% / 기금지 부담금 1%로 정합니다.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고객센터(1577-41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우편 및 금융실용 업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연금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광고(인사)는 2024-14665-1호(2024.10.07~2025.10.06)